



**WE CHANGE**  
**2018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ransition city, Seoul 2018

**문명전환과 도시의 실험**

2018. 10. 11.(목) 9:30 ~ 18:00

서울시청 다목적홀

『2018 서울, 전환도시 국제컨퍼런스』  
**질의응답 시스템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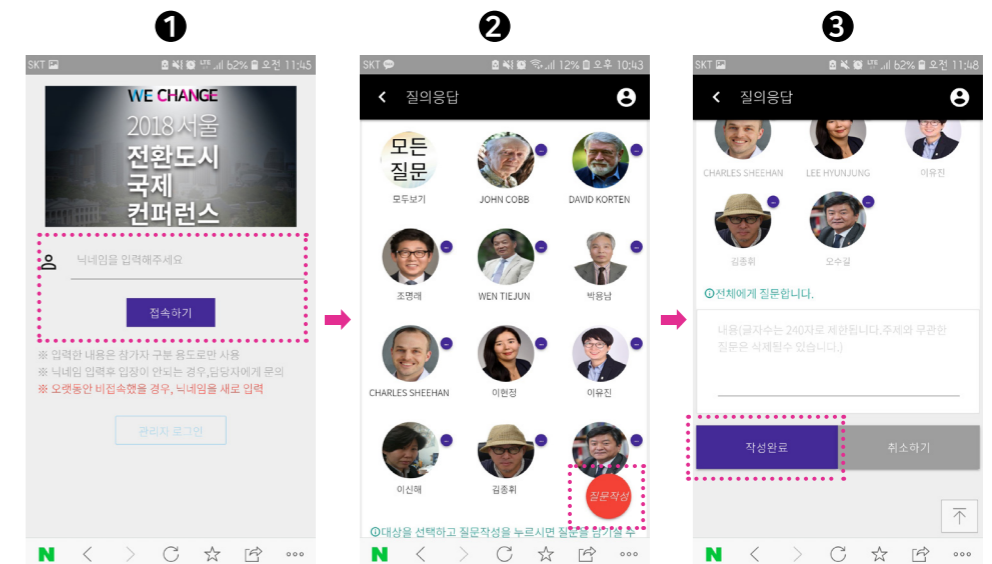


QR CODE

QR코드 및 하단의 URL을 입력하여  
 질의응답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RL 주소 : <https://event-us.kr/3381>

- ❶ QR코드 또는 하단의 URL을 통하여 질의응답 페이지에 접속한다.
- ❷ 본인의 이름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닉네임을 입력한 후, '접속하기' 버튼을 누른다.
- ❸ 질문하고자 하는 연사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의 '질문작성'을 누른다.
- ❹ **질문사항을 작성하여 '작성완료' 버튼을 누른다.**





## Contents

개회사 / Opening Speech .....	04
프로그램 / Program .....	06
환영인사 / Welcome Speech .....	11
<b>Session 1</b>	
<b>문명전환과 도시의 과제 / .....</b>	<b>14</b>
Transition of Civilization and the Challenges Facing Cities	
문명전환을 위한 담론 / Discourse for the civilization-transition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도시의 역할 / Transition to an Ecological Civilization: The Role of the City	
생태균형과 도시의 새로운 발전전략 / Ecological Balance and Cities' New Development Strategies	
<b>Session 2</b>	
<b>문명전환을 위한 지구촌 도시의 실험들 / .....</b>	<b>22</b>
Global Experiments for Transition of Civilization	
중국의 생태문명 전환과 북경시의 도전 / Eco-civilization in China When Facing the Global Crisis	
중남미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혁신적 사례 / Innovative Cases for the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Latin American Cities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샌프란시스코의 길 / San Francisco's Path to Net-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열 스트레스를 저감하기 위한 슈투트가르트의 녹지 중심 도시계획 방안 / Green countermeasures of urban planning to reduce heat stress: the example of Stuttgart, Germany	
<b>Session 3</b>	
<b>전환도시 서울의 도전과 실험 / .....</b>	<b>32</b>
Transition City Seoul's Challenge and Experiments	
전환도시, 서울 - 에너지 정책, 지원을 넘어 자치로 / Transition City, Seoul - Energy Policy, from Support to Self-governance	
걷는도시 서울 / Walkable City Seoul	
공유도시를 위한 서울 협치 / Seoul's Collaborative Governance towards Sharing City	
서울 SDGs / Seoul SDGs	
<b>종합토론 / Floor Discussion</b>	
전환시대, 더 깊은 변화를 위한 서울의 도전과 과제 / Era of Transition, Seoul's Challenges and Tasks towards Deeper Change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입니다.

오늘 '2018 서울 전환도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박원순 시장님,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좌장으로 귀한 시간 내주신 강금실 대표님, 정건화 한신대학교 교수님,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님, 또 발표자·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간 <서울연구원>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경제, 교통 등 다양한 도시 분야 의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와 시민의 삶에 기여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을 비롯한 도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폭우 등으로 시민들의 삶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문제 외에도 극심한 부의 불균형 및 불평등,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도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도시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50%가 거주하는 도시는 인류문명의 총화입니다. 또한 도시는 기후변화와 부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해법이기도 합니다. 도시가 앞으로도 우리 인간에게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제 문명전환적 사고와 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위와 같은 취지로 '2018 서울 전환도시 국제컨퍼런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문명전환과 도시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우리 시대가 함께 만들어야 할 문명전환에 대한 시대정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문명전환을 위한 지구촌 도시의 실험들'이라는 주제 아래 중국의 생태문명전환 정책과 실천사례, 탈화석연료 사회를 향한 샌프란시스코의 도전, 꾸리찌바시 등 중남미 도시들의 혁신적인 사례, 슈투트가르트의 녹지 중심의 도시계획 등 지구촌에서 시도하고 있는 문명전환적 도전들에 대해 사례를 공유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전환도시 서울의 도전과 실험'이라는 주제로 태양의 도시 서울, 걷는도시 서울, 공유도시 서울,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서울 SDGs) 등 전환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변화와 도전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시대, 더 깊은 변화를 위한 서울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의 발표자를 모시고, 컨퍼런스에 참여한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전환도시 국제컨퍼런스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결과가 서울과 세계도시들이 문명전환을 이루고,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날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 준비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리며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SEO Wang-jin and I am the president of the Seoul Institute,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citizens, Mayor PARK Won-soon, Chairman SHIN Weon-chun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as well as all of those who have been engaged in this event for join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ransition City, Seoul 2018'.

My sincere appreciation also goes to today's moderators, president KANG Kum-sil, professor JUNG Gunna of Hanshin University and professor YUN Sun-ji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well as presenters and discussants.

The Seoul Institute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administration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life of Seoul citizens by systematically studying diverse urban agenda that affect the life of citizens, such as environment, economy and transport, and proposing solutions.

As you are well aware, Seoul and other world cities now suffer from record-breaking heat wave and torrential rain, caused by fine dust and climate change, which threaten the life and safety of citizens. Not only human dwelling, but also habitats of animals and plant are not safe from such dreadful threats.

In addition to those environmental challenges, extreme wealth gap and inequality and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have created various issues for cities and challenged their very sustainability.

Cities that are home to about 50% of human population are an aggregation of human civilization. While cities are a source of climate change, uneven distribution of wealth and social inequality, they are also solutions themselves. In order to make cities continue to guarantee us happy life, we need to change our mindset and take challenges for transition of civiliz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Seoul Institute has organize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ransition City, Seoul 2018'.

In the first session, "Transition of Civilization and the Challenges Facing Cities", we will invite the world's preeminent scholars to discuss the spirit of the times for civilization transition that our generation has to achieve.

In the second session, "Global Experiments for Transition of Civilization", the presenters will share with us China's policies and practices for Ecological Civilization, San Francisco's initiative for a society without fossil fuel, innovative case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n cities including Curitiba, Brazeil, and green countermeasures of urban planning by Stuttgart, Germany.

In the third session, "Transition City Seoul's Challenges and Experiments", we will listen to the changes and challenges of Seoul on its path to a transition city; city of Solar Power, Seoul, Walkable City, Seoul and Seoul SDGs.

In the last session, "In the Era of Transition, Seoul's Challenges and Tasks for Deeper Change", we will invite the presenters of the first and second sessions to discuss the future of Seoul with the audience.

I sincerely hope that what will be discussed and produced in this conference will help Seoul and other global cities to achieve civilization transition, and lead to their citizens' happy life and sustainable society.

I would like to close my remark by thanking once again the presenters and discussants as well as all the other guests for being with us today despite their busy schedule.

Thank you.

October 11, 2018  
President of the Seoul Institute SEO Wang-jin

# 문명전환과 도시의 실험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2018년 10월 11일 '전환도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후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CO<sub>2</sub>를 줄이거나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2018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문명전환을 위한 도시들의 실험을 토론하고 도시 간 연대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프로그램	연사
----	------	----

09:30 - 10:00	등록	
10:00 - 10:10	개회식 - 개회사 및 축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10:10 - 10:30	환영인사	박원순(서울특별시 시장)

## 제1부. 문명전환과 도시의 과제

좌장 : 강금실(포럼 지구와사람 대표)

10:30	#1. "문명전환을 위한 담론"	존 캡 / JOHN COBB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명예교수)
	#2.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도시의 역할"	데이비드 코튼 / DAVID KORTEN (전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3. "생태균형과 도시의 새로운 발전전략"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12:00	+ 발표자 간 대담	좌장 강금실

12:00 - 14:00 점심식사

## 제2부. 문명전환을 위한 지구촌 도시의 실험들

좌장 : 정건화(한신대 교수)

14:00	#1. 중국의 생태문명 전환과 북경시의 도전	원테진 / WEN TIEJUN (중국 인민대학 교수)
	#2. 중남미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혁신적 사례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원 소장)
	#3. 2050년 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샌프란시스코의 길	찰스 쉬한 / CHARLES SHEEHAN (샌프란시스코 환경부)
	#4. 열 스트레스를 저감하기 위한 슈투트가르트의 녹지 중심 도시계획 방안	이현정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청 환경보전국)
15:50	+ 사례공유 토론	좌장 정건화

15:50 - 16:00 휴식

## 제3부. 전환도시 서울의 도전과 실험

좌장 : 윤순진(서울대 교수)

16:00	#1. 전환도시, 서울- 에너지 정책, 지원을 넘어 자치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2. 걷는도시 서울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공유도시를 위한 협치, 서울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
	#4. 서울SDGs	오수길 (서울지속가능발전위원회)
17:20	+ 서울시 추진현황 및 미래방향 토론	좌장 윤순진

## 종합토론

좌장 : 서왕진(서울연구원장)

17:20 - 18:30 전환의 시대, 더 깊은 변화를 위한 서울의 도전과 과제  
+ 존 캡, 데이비드 코튼, 조명래, 원테진, 박용남, 찰스 쉬한, 이현정

# Civilization-transition and cities' experiment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Seoul Institute will host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ransition City, Seoul 2018'. Nowadays the world is facing many complicated problems not only climate-environmentally, but also social-economically. Simply reducing CO2 or resolving the inequality won't solve all the problems. We need more fundamental introspection. Throug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ransition City, Seoul 201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Seoul Institute would like to discuss about cities experiments for civilization-transition, builds solidarity between cities. We kindly ask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Time	Program	Speaker
09:30 - 10:00	Registration	
10:00 - 10:10	Opening Speech / Congratulatory Message	Seo Wang-jin (President of the Seoul Institute)  Shin Weon Chul (Chairman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10:10 - 10:30	Welcome Speech	Park Won Soon(Mayor of Seoul)

## Session 1. Transition of Civilization and the Challenges Facing Cities

Chair : Kum Sil Kang (CEO, Forum People for Earth)

10:30	#1. Discourse for the civilization-transition	JOHN COBB (Emeritus Professor at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 Transition to an Ecological Civilization: The Role of the City	DAVID KORTEN (Former Professor of the Harvard Business School)
	#3. Ecological Balance and Cities' New Development Strategies	Cho Myung-rae (President of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12:00	+ dialogue	Chair: Kum Sil Kang (CEO, Forum People for Earth)

12:00 - 14:00 lunch

## Session 2. Global Experiments for Transition of Civilization

Chair : Jeong Geon-hwa  
(Professor of Hanshin University)

14:00	#1. Eco-civilization in China When Facing the Global Crisis	WEN TIEJUN (Professor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2. Innovative Cases for the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Latin American Cities	Yong-Nam Park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for Sustainable Cities)
	#3. San Francisco's Path to Net-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CHARLES SHEEHAN (San Francisco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4. Green countermeasures of urban planning to reduce heat stress : the example of Stuttgart, Germany	Hyun-jung Lee (City of Stuttgart, Off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of Urban Climatology, Germany)
15:50	+ promoting status and discussing the future direction	Chair : Jeong Geon-hwa

15:50 - 16:00 break time

## Session 3. Global Experiments for Transition of Civilization

Chair : Yun Sun-Jin(Professor of Seoul University)

16:00	#1. Transition City, Seoul - Energy Policy, from Support to Self-governance	LEE Yu-jin (Senior Research Fellow of Institute for Green Transformation)
	#2. Walkable City Seoul	Lee Shin-hae (The Seoul Institute senior research fellow)
	#3. Seoul's Collaborative Governance towards Sharing City	Kim Jong Whee (President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4. Seoul SDGs	Soogil Oh (Seou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17:20	+ Seoul Metropolitan City's promoting status and discussing the future direction	Chief: Yun Sun-Jin

## Floor Discussion

Chief : Seo Wang-jin(President of the Seoul Institute)

17:20 - 18:30 Era of Transition, Seoul's Challenges and Tasks towards Deeper Change  
+ John Cobb, David Korten, Cho Myung-rae, Wen Tenjun, Yong-Nam Park, Charles Sheehan, Hyun-jung Lee



**박원순**(서울특별시 시장)  
Park Won Soon  
(Mayor of Seoul)

**학력**

1974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9년 단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1991 ~ 1992년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s Diploma in International Law 취득

**주요 경력**

1980년 사법시험 합격(22회)  
1982년 대구지검 검사  
1993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객원연구원 (Visiting Fellow)  
1995 ~ 2002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2002 ~ 2009년 아름다운 가게 총괄상임이사  
2001 ~ 2010년 아름다운 재단 총괄상임이사  
2005년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2006 ~ 2011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2011년 10월 ~ 제35대 서울특별시장  
2014년 7월 ~ 제36대 서울특별시장  
2018년 7월 ~ 제37대 서울특별시장

**저서**

한국의 시민운동-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당대(2002)  
마을이 학교다 - 검동소(2010)  
아름다운 세상의 조건 - 한겨레신문사(2010)  
올리버는 어떻게 세상을 요리할까? - 이매진(2011)  
마을회사 - 검동소(2011) 등 다수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 - 문학동네(2011)  
아름다운 가치사전 - 위즈덤하우스(2011)  
마을, 생태가 답이다 - 검동소(2011)  
경청 - 휴먼큐브(2014)

**논문**

부패방지의 제도적 개혁방안(1997)  
한국시민사회의 제도적 개혁과제(1998)  
비영리단체의 재정 투명성(2004)

**수상경력**

2006년 만해상 실천부분 수상  
2006년 막사이사이 PUBLIC SERVICE부분 수상  
2007년 단재상 수상  
2009년 제15회 불교인권상 수상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ransition city, Seoul 2018

**Education**

1974 Graduated from Gyunggi High School  
1979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history from Dankook University  
1991 ~ 1992 Earned an International Law diploma from LSE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s)

**Work Experiences**

1980 Passed the 22nd bar exam  
1982 Served as a prosecuting attorney for the Daeg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1993 Worked as a visiting fellow at the Law School of Harvard University in the USA  
1995 ~ 2002 Served as a Secretary General for the People's Solidarity for a Participatory Democracy  
2002 ~ 2009 Served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Beautiful Store  
2001 ~ 2010 Served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Beautiful Foundation  
2006 ~ 2011 Served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Hope Institute.  
2011. Oct. 35th Mayor of Seoul  
2014. Jul. 36th Mayor of Seoul  
2018. Jul. 37th Mayor of Seoul

**Books Authored**

Korea's Civil Movements:  
The Bed of Procrustes, Dangdae (2002)  
Villages Are Schools - Geomdungso (2010)  
The Condition of the Beautiful World- Hankyoreh Newspaper (2010)  
How Does Oliver Cook the World? - An e-magazine (2011)  
Village Enterprises - Geomdungso (2011)  
1,000 Jobs that Changed the World - Munhak Dongne (2011)  
Dictionary of Beautiful Value - Wisdom House (2011)  
Ecology is the Answer for Villages - Geomdungso (2011)  
Listening Skills - Human Cube(2014)

**Theses**

Measures for Institutional Reform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1997)  
Tasks of institutional reform for Korea's Civil Society (1998)  
Financial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s (2004)

**Awards**

2006 Received the Manhaesang Award  
2006 Received the Philippines Magsaysay Award in the category of public service  
2007 Received the Danjaesang Award  
2009 Received an award at the 15th Buddhism Human Rights Awards



**서왕진**(서울연구원 원장)  
SEO Wang-jin  
(President of the Seoul Institute)

**학력**

1989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문학사)  
2003년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환경정책학과 졸업  
(행정학석사 : 도시환경정책전공)  
2010년 미국 델라웨어대 대학원 졸업  
(박사 : 에너지환경정책 전공)

**주요 경력**

1998 ~ 2003년 사단법인 환경정의 사무처장  
2010 ~ 2011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0 ~ 2011년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2011 ~ 2012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정책특보  
2012 ~ 2014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비서실장  
2014 ~ 2016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정책특보  
2016 ~ 2017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2018 ~ 현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2017 ~ 현재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 원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환경정책학 석사,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장 정책특보와 비서실장을 거쳐 2017년 제15대 서울연구원장으로 취임, 도시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연구를 총괄 지원하고 있다. 또 에너지환경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조율하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ducation**

1989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major in Communication (bachelor of arts)  
2003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Urban Environment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eoul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 Urban Environment Policy)  
2010 Graduate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Delaware in the US (PhD : Energy & Environment Policy)

**Work Experiences**

1998 ~ 2003 Director of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2010 ~ 2011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 2011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Environmental Justice  
2011 ~ 2012 Policy advisor to Mayor's Office a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2 ~ 2014 Chief secretary of Mayor's Office a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 2016 Policy advisor to Mayor's Office a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6 ~ 2017 Professor of Research & Business Foundation, Korea University  
2018 ~ Present Member of Green Growth Korea  
2017 ~ Present President of the Seoul Institute

SEO Wang-jin, president of the Seoul Institut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earned his master's degree in Urban Environment Policy from the University of Seoul and his doctor's degree in Energy & Environment Policy from the University of Delaware in the US. Then he served as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Environmental Justice,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bsequently after working for Mayor's Office a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policy advisor and chief secretary, Seo was appointed as the 15th president of the Seoul Institute in 2017 and has overseen the studies that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urban policies. As he is also an expert in energy and environment policy, he is engaged in Green Growth Korea, a public organization dedicated to reviewing and coordinating the Korean government's low-carbon, green growth policies so that they will be implemented in a balanced way.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Shin Weon Chul  
(Chairman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학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휴학중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석사

**주요경력**

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8-07-01 ~ 현재)  
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07-01 ~ 2018-06-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7-09-10 ~ 2018-06-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8-04-04 ~ 2018-06-30)  
교통위원회 위원 (2016-07-17 ~ 2018-04-03)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2014-07-17 ~ 2016-07-16)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014-07-01 ~ 2016-06-30)  
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0-07-01 ~ 2014-06-30)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2012-07-16 ~ 2014-06-30)  
정책위원회 위원 (2012-09-06 ~ 2014-06-30)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2013-06-25 ~ 2014-06-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3-10-04 ~ 2014-06-30)  
서울특별시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2013-11-26 ~ 2014-06-30)  
도시관리위원장 (2010-07-16 ~ 2012-07-15)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  
2016-10-31 ~ 2018-06-30  
제8,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국회의원 우상호 4급 보좌관

**Education**

Engaged in the doctorate course of Public

**Work Experiences**

**July 2018 - present**  
Chairman of 10th Seoul Metropolitan Council  
**July 2014 - June 2018**  
Member of 9th Seoul Metropolitan Council  
- Head of Decentralization Taskforce (Oct 2016~Jun 2018)  
- Member of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ing (Sep 2017~Jun 2018)  
- Memb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Apr 2018~Jun 2018)  
- Member of Transportation Committee (Jul 2016~Apr 2018)  
- Member of Administration Committee (Jul 2014~Jul 2016)  
- Majority Leader, Democratic Party, Seoul Metropolitan Council (Jul 2014~Jun 2016)  
**July 2010 - June 2014**  
Member of 8th Seoul Metropolitan Council  
- Member of Administration Committee (Jul 2012~Jun 2014)  
- Member of Policy Committee (Sep 2012~Jun 2014)  
- Member of Special Committee on School Violence (Jun 2013~Jun 2014)  
- Member of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ing (Oct 2013~Jun 2014)  
- Member of Special Committee on Support fo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and Promotion of Sports (Nov 2013~Jun 2014)  
- Chairman of City Management Committee (Jul 2010~Jul 2012)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Master of Public Policy, Yonsei University



## 좌장소개



**좌장: 강금실**(포럼 지구와사람 대표)

Chair: Kum Sil Kang  
(CEO, Forum People for Earth)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13년간 판사로 재직하였고, 판사직 퇴임 후 법무법인 지평의 로펌대표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로펌의 소송, 해외투자자문, 부동산관련 프로젝트진행, 가족법관련사건과 상속승계 문제 등 법률 지원 업무 전반에 걸쳐 파트너변호사들과 협업관계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특별고문, 2014년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특별고문을 맡으면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한중간 동반경제성장과 관련한 업무분야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Kang Kum-sil served as the Minister of Justice in Korea. Kang worked as a judge for the Seoul High Court for 13 years, and, after retirement, took the post of CEO of Jipyong LLC, a law firm. She now works with partner lawyers to deal with a wide range of assignments: litigations, advisory service for foreign investment, real estate-related projects and family law and inheritance cases. Especially, since she was appointed in China as a special advisor to the Qiqihar City Government, Heilongjiang in 2013, and as a special economic advisor to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2014, she has expanded the scope of her business to support Korean companies' exploration of overseas markets and Korea-China partnership for joint economic growth.

## WE CHANGE

### 제1부. 문명전환과 도시의 과제

Session 1. Transition of Civilization  
and the Challenges Facing Cities



존 캅(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명예교수)

John B. Cobb, Jr.(Emeritus Professor at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약력

역사가 게리 도리엔(Gary Dorrien)이 20세기 가장 중요한 두 명의 북미 신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는 존 캅(John B. Cobb, Jr.) 교수는 과정 철학(process philosophy) 및 과정 신학( (process theology) 분야의 저명한 학자이자 50권이 넘는 저서의 저자이다. 2014년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동료 학자인 데이비드 그리핀(David Griffin) 과 함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에 과정연구센터(The Center for Process Studies)를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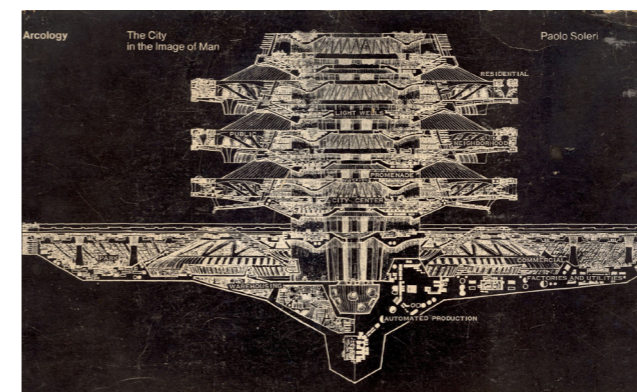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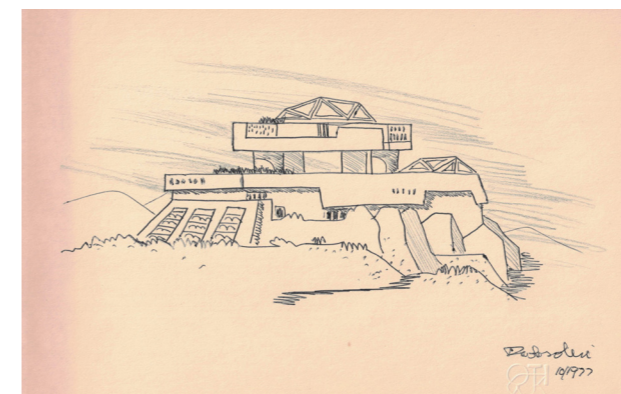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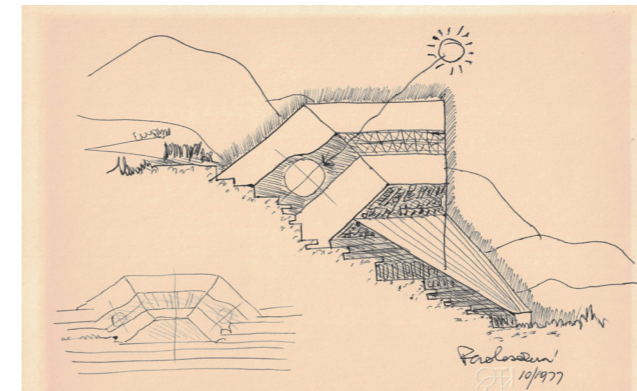
Profile

John B. Cobb, Jr. is described by historian Gary Dorrien as one of the two most important North American theologians of the twentieth century, Cobb is the preeminent scholar in the field of process philosophy and process theology, and the author of more than fifty books. In 2014, he was elected to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He founded The Center for Process Studies a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with his colleague scholar David Griffin.

초록

문명전환을 위한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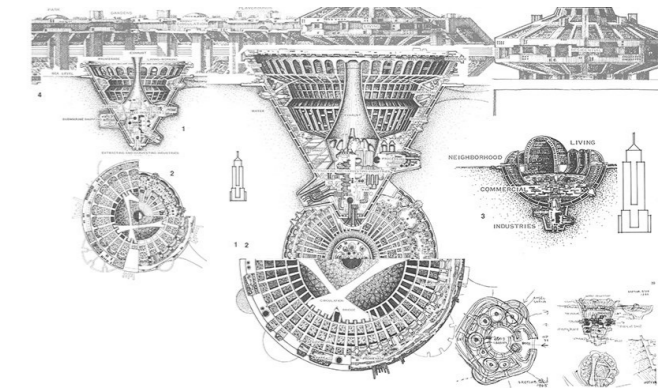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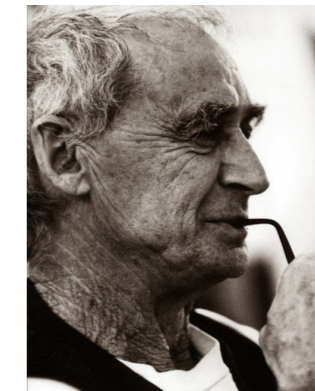
외부의 관찰자로서 나는 서울이 지구를 위한 선도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생태 문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통합된 비전(integrated vision)이다." 서울은 단지 개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서울은 각각의 행위(action)를 다른 모든 행위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성과를 보다 큰 범위의 성과라는 관점에서, 즉 글로벌 생태 문명에 기여하는 생태 도시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가 전체를 단순히 각 부분의 합으로 생각하는 현대 서구식 사고를 거부하고 그러한 이미지를 유기적 또는 총체적 비전으로 대체할 때 이러한 비전이 심화된다. 현재 존재하는 도시에 관한 가장 총체적 비전은 전체 도시를 건축 생태계 또는 "생태 건축학(arcologies)"으로 그리고 있는 파올로 솔레리(Paolo Soleri)의 비전이다. 서울은 이러한 가능성의 탐색에 있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Abstract

Discourse for the civilization-transition

As an outside observer, I believe that Seoul is becoming a lead city for the planet. What can those of us committed to "ecological civilization" contribute? My answer is "an integrated vision." Seoul can go beyond solving individual problems. It can consider each action in its relation to all the other actions, each accomplishment as part of a larger accomplishment: the building of an ecological city that contributes to an ecological global civilization. This vision is deepened when we reject the tendency of modern Western thought to see the whole as simply the sum of its parts, replacing that image with an organic or holistic vision. The most holistic vision of a city now available is that of Paolo Soleri, who envisioned whole cities as architectural ecologies or "arcologies." Seoul could lead the world in exploring such a possibility.





### 데이비드 코튼(전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David Korten(Former Professor of the Harvard Business School)

### 약력

데이비드 코튼(David Korten)은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When Corporations Rule the World>와 <The Great Turning: From Empire to Earth Community>를 포함한 영향력 있는 저서를 통해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저자이자, 강연자, 참여하는 시민이다. 그의 다른 주요 저서로는 <Change the Story, Change the Future>, <Agenda for a New Economy: A Living Economy for a Living Earth>, <Agenda for a New Economy;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rom Wall Street>, <The Post-Corporate World: Life after Capitalism> 등이 있다.

코튼 박사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에서 경영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Living Economies Forum의 대표, 로마클럽(Club of Rome)의 회원, 『YES! Magazine』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연구는 생태 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을 위한 시스템 체계 및 이를 향한 경로를 정의하는 것이다.

경력 초기에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Harvard Business School professor) 교수로, 하버드대 보건대학원(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강사로 재직했다. 21년 간 에티오피아, 니카라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개발 전문가로 활동하며 중앙아메리카 경영연구소(Central American Management Institute) 학장 및 하버드 저문, 필리핀 경영전문대학원(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객원 교수,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아시아 사무소 지역 자문 등을 역임했다.

### Profile

David Korten is an international author, lecturer, and engaged citizen best known for his influential book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bestselling When Corporations Rule the World and The Great Turning: From Empire to Earth Community. His other major books include: Change the Story, Change the Future; Agenda for a New Economy: A Living Economy for a Living Earth; Agenda for a New Economy;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rom Wall Street; and The Post-Corporate World: Life after Capitalism.

He holds MBA and PhD degrees from the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d is, president of the Living Economies Forum, a member of the Club of Rome, and co-founder and board chair emeritus of YES! Magazine. His current work centers on defining a system frame for and pathway to an Ecological Civilization.

In his early career he served as a Harvard Business School professor and a lecturer at the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He lived and worked for 21 years as a development professional in Ethiopia, Nicaragua, Philippines, and Indonesia, including assignments as Academic Dean and Harvard advisor at the Central American Management Institute, a visiting professor at the 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and a regional advisor to USAID missions throughout Asia.

### 초록

##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도시의 역할

인류는 이제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화, 미(美), 창의성, 물질적 풍요, 정신적 충만함이 모든 이에게 허락되는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인간의 문명으로의 전진이라고 불러 보자.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생물의 필요와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인류의 존중을 잘 나타내는 '생태 문명으로의 전진'이라고 불러 보자. 이러한 문명으로의 전진을 위해서는 급진적인 문화 및 제도 개혁을 통한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생명을 가장 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적인 목적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을 자립적이고, 민주적인 자치를 실행하며,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의 일차적 구성 단위인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경제 과학으로 포장한 사상인 신자유주의에 매혹되고 오도된 우리는 인간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1.7 배를 더 소비하고, 불과 6명의 금융 자산이 가장 빈곤한 인류 절반의 자산을 능가하는 세상에서 인류가 자멸로 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우리는 돈이 즉 부로서 부를 만들어 주며, 개인은 송고하며, 개인의 재무적 이익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이익이란 없으며, 억만장자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믿음은 생물로서의 우리의 본성,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의존, 자원과 책임 공유의 필요성, 사회적, 환경적 건강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적 역할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과학은 토착민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실, 즉 생명이란 자신의 생존 조건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자신을 구성하는 다양한 생명체 공동체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우리 인간의 생존은 지구의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끊임없이 에너지, 영양분, 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태양, 대수층, 개울, 강을 재생성하고, 여분의 탄소, 독소, 기타 폐기물을 격리하고, 태양 에너지를 포집하고, 공기를 정화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태양 에너지의 흐름과 물, 에너지, 영양분 공급의 가용성에 맞게 기후와 온도를 안정화시키는 자체 구성 프로세스에 달려 있다. 이러한 자체 구성 프로세스는 동시에 개별 종 인구를 통제해 전체 생태계 건강에 필수적인 종의 다양성을 유지시킨다.

우리의 건강 및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 그 자체도 이와 동일한 프로세스에 의존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및 기업 규칙의 영향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의존하고 있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상호의존적인 구성원으로서 보다는 기생 동물로서 지구와 관계를 맺고 있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멸을 이끄는 행동을 조장하고, 보상하고, 심지어 요구하는 주요 기업 및 정부 기관을 우리가 만들고 조직했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가뭄, 홍수, 허리케인, 화재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마치 지구가 현재 지구 구원을 위해하고 있는 기생 동물을 없애고자 이러한 자연재해를 동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가 오히려 자연을 더욱 착취한다면 이는 우리의 자멸을 재촉할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구의 착취자에서 지구의 치유자로 우리의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급진적인 문화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개념적으로는 간단하나 적용은 매우 어렵다. 이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문화적, 제도적 변화의 토대는 공동의 미래를 선택할 능력을 지닌 자각하는 생명체로서의 우리의 진정한 본성 및 가능성을 공동으로 깨닫는 것이 될 것이다.

기업이 지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유권이 공평하게 지역에 분배되도록 기업을 해체하고 구조 조정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도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Indicators)를 초기 모델로 이용하여 건강한 생명 기능의 기준에 따라 경제 성과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생태 문명은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에 적합한 이름처럼 보인다. '생태적(Ecological)'이란 단어는 모든 생명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문명(Civilization)'이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civil) 인간의 미래 창출에 필요한 문화 및 제도적 변화의 깊이를 상기시켜 준다.

3년에 걸친 세계적 협의의 산물인 지구 헌장(Earth Charter)은 이러한 인간의 꿈에 대한 열의를 일련의 보편적 윤리 원칙으로 옮겨 놓았다. 지구 헌장은 인류가 지구라는 생명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다양성 및 상호 의존성을 신중하게 다루고, 모든 사람의 내재된 개인 및 집단의 존엄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자유, 지식, 권력이란 개별 및 집단으로 그에 상응하는 공익 배려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지구 헌장은 더 나아가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하고, 참여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평화적인 민주 사회를 만드는 동시에 지구 생명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확보하고, 모든 사람이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의미 있고, 생태적으로 책임감 있는 생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큰 변화에 대한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계층 및 지구, 특히 사람들의 실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요 도시들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2018년 블룸버그 혁신지수(Bloomberg Innovation Index Seoul) 평가에서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된 한국의 수도이자, 핵심 중심 도시이자, 지적 자원이 서울은 이러한 리더십을 제공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

도시들은 생태 문명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인간이 우리 자신의 웰빙에 필수적인 인간 이외의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파괴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면 도시가 상당한 다수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간 인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용은 계급 구분을 제한하고,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유지하고, 자동차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도심의 교외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와 주변 시골 지역 및 사람들과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성공은 강력한 지역과 도시 간의 연계를 구축해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고, 화석 연료, 화학 비료 및 살충제의 사용을 없애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분해, 재사용을 진전시켜 주는 자연적인 재생 프로세스의 복원 및 개선을 통해 지역과 도시 양쪽 사람 모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는 어디에서나 표준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과 정부는 자유롭게 그들의 노력을 통한 교훈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를 위해 평화롭고, 아름답고, 창의적이고, 배려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지닌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우리의 공동 정체성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 국가로 단합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 Abstract

## Seoul Transition City Presentation Summary "Transition to an Ecological Civilization: The Role of the City."

Humanity is positioned to take the step to the long-denied dream of a world of peace, beauty, creativity, material sufficiency, and spiritual abundance for all. Call it the human step to civilization. Or, more specifically, an ecological civilization to thus highlight its respect for the needs and inherent dignity of all living beings. It will require a dramatic change of course supported by a radical cultural and institutional restructuring featuring a transition from private-purpose profit-maximizing transnational corporations that value life only for its market price, to self-reliant, democratically self-governing life-serving communities as our primary units of organization.

Seduced and misdirected by neoliberalism, an ideology posing as economic science, we find ourselves in a struggle for survival on a path to species self-extinction in a world in which humans consume at 1.7 times what Earth can sustain and the financial assets of just 6 individuals are greater than those of the poorest half of humanity.

Neoliberalism would have us believe that money is wealth, making money creates wealth, the individual is supreme, there is no community interest beyond individual financial interests, and making money for billionaires enriches everyone. This denies our nature as living beings, our reliance on nature, our need to share resources and responsibility, and the essential role of government in securing social and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is affirming what indigenous people have long known: Life exists only in diverse communities of living organisms that self-organize to create and maintain the conditions of their own existence. Our human existence depends on the self-organizing processes by which Earth's countless living organisms engage in the continuous exchange of energy, nutrients, water, and information to regenerate soils, aquifers, streams, and rivers; sequester excess carbons, toxins, and other wastes; capture solar energy; purify air; and stabilize weather and temperatures adjusting to constantly changing flows of solar energy and available supplies of water, energy, and nutrients. These self-organizing processes simultaneously control individual species populations to maintain the multi-species diversity essential to overall ecosystem health.

Not only our health and happiness, but our very existence, as well, depends on these same processes. Yet under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and corporate rule, we relate to Earth more as parasites than as contributing, interdependent members of the community on which our lives depend. Worst of all, we have created and structured the primary institutions of business and government to facilitate, reward, even demand the behaviors that lead ultimately to our self-extinction.

As we experience ever stronger droughts, floods, hurricanes, and fires, it appears as if Earth is mobilizing to rid itself of the parasite that currently threatens it. If we respond by exploiting nature even more, we will only speed our own extinction. Our job is to transition from being Earth exploiters to being Earth healers. To do so will require a radical cultural and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The remedy is simple in concept; daunting in application.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we must now navigate will build on a common awakening to our true nature and possibility as self-aware living beings with the ability to choose our common future.

Corporations will need to be broken up and the pieces restructured to ensure local accountability and equitably distributed local ownership. We will henceforth evaluate the economy's performance against metrics of healthy life function, perhaps using Bhutan's Gross National Happiness Indicators as an initial model.

Ecological civilization seems a fitting name for the future we seek. Ecological is broadly inclusive of all living beings. Civilization evokes the depth of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required to create a human future that is truly civil.

The Earth Charter, the product of three years of worldwide consultations, translates the aspirations of this human dream into a set of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It calls on humanity to respect the inherent worth of Earth's community of life, care for that community in all its diversity and interdependence, and recognize the inherent individual and collective dignity of all people. It reminds us that freedom, knowledge, and power carry a corresponding individual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care for the common good. The Charter further affirms that to fulfill this responsibility, we must secure Earth's living bounty and beauty while creating democratic societies that are just, participatory, sustainable, and peaceful, celebrate diversity, and enable all people to achieve a secure, meaningful, and ecologically responsible livelihood now and for all generations to come.

Implementing this transformational vision will require leadership from all levels and institutions of society, especially from major cities that are grounded in the realities of their people. Seoul, the capital, major urban hub, and intellectual resource center for South Korea, named the most innovative country in the world by 2018 Bloomberg Innovation Index for the fifth straight year, is especially well positioned to provide such leadership.

Cities have a special place in an ecological civilization. They will need to accommodate a substantial majority of the current and future human population if we are to minimize disruptive human impacts on non-human living systems essential to our own well-being. This must be done in ways that limit class divisions, maintain human connections with nature, minimize auto dependence, eliminate suburban sprawl, and honor the city's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with surrounding rural areas and peoples.

Success will depend on building strong rural-urban linkages to improve the lives of both rural and urban peoples in ways that restore and enhance the natural regenerative processes that provide us with clean air, clean water and fertile soils; eliminate the use of fossil fuels, chemical fertilizers and insecticides; ensure access to healthy food; and advance the recycling, decomposition and reuse of wastes. This must become the norm everywhere, with all peoples and governments freely sharing the lessons of their efforts.

The time has come to unite as families, communities, and nations in our common identity as members of Earth's community of life with a shared commitment to create a world of peace, beauty, creativity, and caring for all.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Cho Myung-rae(President of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약력**

**학력**

- 1979년 단국대학교 행정학(지역개발학) 졸업
- 198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졸업(석사: 환경계획 전공)
- 1992년 영국 서섹스 대학교 대학원 졸업(석/박사: 도시지역학)

**경력**

- 2018.07 ~ 현재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위원장
- 2018.01 ~ 현재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 2017.11 ~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2001.07 ~ 2004.06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 2003.03 - 2008.0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2013.10 - 2015.09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 2011.10 - 2017.12 환경정의 공동대표

**주요 저서**

포스트포디즘과 현대사회위기(1999), 녹색사회의 탐색(2001,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현대사회의 도시론(2002,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개발정치와 녹색진보(2006), 지구화 되돌아보기 넘어서기(2009), 공간으로 사회읽기(2013,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세종)도서), 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2013) 외 공저 64여권

**주요 논문**

- 2017, '로컬리티의 생태학과 생태적 로컬인', 공윤경 외 지음,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 서울: 소명출판.
- 2015, '모빌리티의 공간성과 모바일 어버니즘',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4호, pp.1-23.
- 2013, '개발국가의 환경정의: 한국적 환경정의론 모색', <<환경법 연구>>, 제35권 제3호.
- 2012,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한국적 도시재생에 관한 비판적 성찰', <<공간과 사회>>, 제37권 제3호 등 약 300편

**상훈**

서울시장 표창상(2018), 세종시 명예시민(2013),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학술상(2003), 단국대학교 연구업적상(2000)

**Profile**

**Education**

- 1979 Graduated from Dankook University with a major in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Bachelor's degree in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 1981 Graduate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major in Urban Planning (Master's degree in Environmental Planning)
- 1992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Sussex in the UK (Master's & doctor's degrees in Urban and Regional Studies)

**Career**

- 2018.07 ~ Present Chairman of the Subcommittee for Sustainable National Development, Sejong National Leadership Committee
- 2018.01 ~ Present Chairman of the Council for the Heads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s
- 2017.11 ~ Present President of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 2001.07 ~ 2004.06 Chairma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 Environment Research
- 2003.03 - 2008.02 Expert adviser to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under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 2013.10 - 2015.09 Chairma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2011.10 - 2017.12 Co-president of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Major publications**

Post-Fordism and Modern Society Crisis (1999), Exploration of Green Society (2001, selected as Outstanding Academic Book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Concept of City in the Modern Society (2002, selected as Outstanding Academic Book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Politics of Development and Progressive Approach to Green Issues (2006), Revisiting Globalization and Overcoming Issues (2009), Understanding Society through Spaces (2013, sselected as Outstanding Academic Book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nstruction-oriented Development Policies and Environmental Crisis (2013) and 64 co-authored books

**Major papers**

2017, Ecology of Locality and Ecological Local Population, GONG Yoon-kyeong and others, <<Ecology and Alternative Locality>>  
 2015, Spatiality of Mobility and Mobile Urbanism, <<Seoul Urban Studies>>, 4th edition, Volume 16, page 1-23  
 2013, Defining Environment for Developing Country: Seeking to define environment to fit Korea, <<Environmental Law Review>>, 3rd edition, Volume 35  
 2012, Cultural Urban Regeneration and Restoration of Public Functions: Critical review of Korea's urban regeneration efforts, <<Space & Environment>>, 3rd edition, Volume 37. About a total of 300 papers were published.

**Awards**

Seoul Mayoral Citation (2018), Honorary Citizen of Sejong City (2013), Award for academic achievement by the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2003) and Award for research achievement by Dankook University (2000)

## 좌장소개



좌장: 정건화(한신대 교수)

Chair: Jeong Geon-hwa  
(Professor of Hanshin University)

## WE CHANGE

## 제2부. 문명전환을 위한 지구촌 도시의 실험들

Session2. Global Experiments for  
Transition of Civilization

1959년 서울에서 출생해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학사, 석사, 박사), 1993년부터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회과학대학장, 교수평의회 의장, 서울평생교육원장, 민주사회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외활동으로 경기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희망제작소 부소장, 서울시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서울 동북 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센터장), 서울연구원 이사, 서울 50+재단 이사를 지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지역사회와 대학간 협력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 실천해왔으며 최근에는 고령화와 베이비 부머의 은퇴 후 삶과 사회공헌, 생태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을 위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한반도 경제론-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서』, 『한국사회의 쟁점과 전망-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반도 경제론-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서』, 『북한의 노동』,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등 공저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우리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라이프라인(Life-line) 정책 연구-서울시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민주주의, 지역 그리고 사회적 경제」,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시스템 변화」,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 분석」, 「민족경제론을 위한 변명」 등이 있다.

JUNG Gunna, who was born in Seoul in 1959,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bachelor's, master's and doctor's degrees), and has worked a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Hanshin University since 1993. He also has served as dean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chairman of the Committee of Professors, president of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and president of the Academy of Democratic Society & Policy. Outside the University, he has held the following posts: a member representing public interests for the Gyeonggi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vice president of the Hope Institute, a policy advisor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ad of Seoul Dongbuk 4-gu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director of the Seoul Institute and director of Seoul 50 Plus Foundation.

He has studied and practiced the following areas: a new development model for the Korean economy, social economy,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social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universities. His recent areas of interest include aging society and baby boomers' post-retirement life and social contribution, and shift of urban policy paradigm for Ecological Transition.

In addition, he is an author or a co-author of a number of books, including Economics of the Korean Peninsula; In search of a new development model, Issues and Forecast of Korean Society; Seeking for a new paradigm to overcome issues of neoliberalism, Labor in North Korea and Democracy and Capitalism of Korea.

The list of his major papers includes Korea's Aging Society Issues, and Social Economy Proposed as a Solution, Transition to Ecological Civilization and Social Economy, Life-line' Policy for Sustainable City Study; Focusing on cases of Seongbuk-gu, Seoul, Assessment of Regional Policy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Democracy, Regions and Social Economy,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Economic System after the IMF Crisis, Analysis of Social Conflict vs. Social-Scientific Conflict and Excuse for the Theory of National Economy.



원테쥬(중국 인민대학 교수)

Wen Tiejun(Professor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약력

원테쥬(Wen Tiejun) 교수는 사회경제적 지속가능 개발 및 지역 이슈, 특히 남남협력의 거시경제 및 전술지정학, 지역과 도시 통합의 포용성장, 지역 비교 연구 분야에 있어 저명한 전문가이다. 원 교수는 중국 내 상위 10대 대학 중 한 곳의 총장으로 초빙 받을 때까지 1980년대부터 20년 이상 다양한 중앙정부 부처에서의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UN, EU가 선정한 해외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1998년 국무원 우수공로상, 2003년 중국중앙텔레비전 연례 10대 경제인재상, 2010년과 2012년 베이징시정부 우수연구업적상, 2015년 교육부 사회과학연구 우수공로상을 수상했다.

언론은 원 교수를 “체험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농전문가”라 부른다. 수십만 명의 학생, 농민, 소작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해외에서의 강의와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다.

원 교수는 현재 중국인민대학 지역센터 소장, 국가환경자문위원회 위원, 국가공물국 및 국가산림국 자문, 중국농업경제협회 부회장, 세계녹색디자인조직(World Green Design Organization) 지역개발 위원회 이사, 녹색토지협동조합협회(Green Ground Cooperatives Association) 및 베이징 리양슈 밉 지역재건센터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Profile

Professor Wen Tiejun is a renowned expert on social-economic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ural issues, especially in policy studies on macro-economic and geo-strategy of south-south cooperation, inclusive growth of rural and urban integration, regional comparative studies. It is because he has not only done more than 20 years policy studies in different Central Governments' department since 1980s, but also overseas' researches appointed by WB, UN, EU, etc, before he was invited to be a dean in one of the top 10 universities in China.

He has got State Council's Award for Outstanding Contribution in 1998, China Central TV Annual Award to Top 10 Economic Talent in 2003, and Beijing Municipal Government Award of Outstanding Study Outcome in both 2010 and 2012, Ministry of Education Award on Outstanding Contribution of Social Science Studies in 2015.

Professor Wen is named by the media as an expert of sannong (peasant, village, and agriculture), who is "doing studies by foot". He has delivered lectures and provided training programs to tens of thousands of students, peasants, peasant workers, and government officers. He has also delivered dozens of lectures and interviews overseas.

Professor Wen is currently Director of the Centre of Rural Reconstruction, Renmin University of China; member of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Environment; policy advisor of the State Administration of Grain and th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stry; vice-president of Chinese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conomics; director of Rural Development Committee of World Green Design Organization; board director of Green Ground Cooperatives Association, and of Liang Shuming Rural Reconstruction Center of Beijing, among others.

초록

글로벌 위기에 직면한 중국의 생태 문명 “아시아적 양식(Asiatic Mode)”이라는 대안적 길에 대한 탈식민지화적 해석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식민지화 및 자본화에 의한 “개발주의(development doctrine)”라는 현대화된 제도적 비용에 기인한 글로벌 위기이다. 서양 국가들의 서구식 식민지 확장이 “현대화(modernization)”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비용과 극심한 변화가 발생했다. 과잉 생산,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해 포괄적 위기가 발생했고, 결국 제2차 서구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는 근대화(modernization)라는 이름으로 산업 이전을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자본화와 “개발주의적 이데올로기(developmentalist ideology)”가 유입되고, 세 가지 주요 글로벌 자본 잉여가 발생하고,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생태 및 환경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 중대 이슈는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을 어떻게 안정화 할 것인가였다. 아시아 사회의 기원을 보면 아시아적 토착 국가들의 ‘생태 사회(Eco-Society)’는 식민지화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평등한 토지 제도를 보유한 상당한 수의 원주민을 통해 생태 농업을 지속했다. 이러한 아시아 인구는 또한 자신들의 생태적 믿음과 천연 자원의 실질적 이용, 가구 및 공동체 단위의 배급에 기초한 자치 제도 등을 토대로 자연을 다루기 위한 자체적인 사회 규범을 개발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평등한 토지 제도 및 지역 가구를 주 구성원으로 하는 원주민에 의해 형성된 ‘아시아적 양식(Asiatic Mode)’이란 많은 토지를 소유한 소시민(petty bourgeois)과 지역 재건의 기본 인프라를 지칭했다. 이와 더불어 20세기에 진행된 토지 개혁을 통해 세계가 재편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평등한 토지 분배로 사회 안정화와 제도적 배당이 뿌리를 내렸다. 중국의 반세기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토지 개혁의 혜택을 누렸다.

식민지화된 국가들의 반생태적 대형 농장과 비교해 볼 때 동아시아의 ‘아시아적 양식’은 새로운 세기에 지속가능한 안보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길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의 생활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인 생태 문명에 관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동시에 국가적 상황 및 국내 안보 강화에 따르는 전통적 전략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되어 왔다.

이 기간 동안 국가적 개발 전략의 변화 및 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중앙 정부의 자금을 통해 농민, 농업, 지역이라는 세 가지 농업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실험이 진행되었다. 특히 농업 정책에 따라 가정이 새로운 지역 재건 및 공급 중심 개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생태 문명 전략 및 국가 정책에 따라 중국인민대학(Renmin University of China, RUC) 지역재건센터(Rural Reconstruction Center)도 해당 전략 및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1) 교육, 문화, 건강, 역사 계승에 있어 농업의 다양한 기능을 홍보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 2) 공정 무역 메커니즘을 토대로 농민 생산자와 소비자 동원을 통한 지역 / 도시의 통합, 3) 공동체지원농업(CSA)을 통한 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혁신 등의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다

2005년 3P로 요약되는 사람들의(People) 생활, 사람들(People) 간의 연대, 사람들의(People)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개선적 사고와 함께 우리는 2012년 3S로 요약되는 원칙 즉 1) 지역 자원 주권(Sovereignty), 2) 다양한 주체 간의 연대(Solidarity) 3) 지속가능한 생태 안보(Safety)를 엄격하게 준수해 생태 문명의 실현을 위한 3대 농업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Abstract

Eco-civilization in China When Facing the Global Crisis A De-colonial Interpretation on Alternative Path of “Asiatic Mode”

The Problems we are facing nowadays is global crisis stems from the modernized institutional cost of “development doctrine” by means of colonization and capitalization. The West Mode of colonial expansion of western countries breeds “modernization”, accompanied by huge costs and vicious shifts. Over production, national competition led to comprehensive crisis, resulting in the second Western World War.

After the war, the third world accepted industrial transfer in the name of modernization, which brought capitalization and “developmentalist ideology”, resulting to three major global capital surplus and causing ecology and environment crisi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informatization, urbanization and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Under this situation, the critical issue in China is how to stabilize the biggest populated country in the world. Looking at the origin of Asia society, the Eco-Society in Asiatic indigenes countries continues its ecologic agriculture with a substantial indigenous population that has not been colonized and relative egalitarian land system. They also developed their own social norms dealing with the nature based on their ecological believes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rouces, as well as and self-governing system built on rational at household and community level. Therefore, the Asiatic Mode formed by East Asia's egalitarian land system and the dominant indiginous population composing with rural households, became landed petty bourgeois, and the basic infrastructure of rural reconstruction. Further more, the Land reforms in the 20th century have reshaped the world. In East Asia, egalitarian land distribution underpinned subsequent social stability and institutional dividends.

China's half century industrialization fundamentally benefited from such land reforms.

Comparing with the De-Eco Big Farms in colonized countries, Asiatic Mode formed by East Asia demonstrates a new alternative path for sustainable security in new century. This brings us to national strategy on ecological civilization, a new era focusing on people's livelihood, but harmonying with the nature, which reflect the strategic adjustment in China to response to the global issues we are facing (at the same time, response to traditional strategic dilemma constrained by national conditions and tightening security within the country). This strategic shift reflects in the national major policies since 1999 till 2017.

Within this period, the changes of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fun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or supporting rural development have flourished numerous experienments to deal with three agrarian issues, related to peasants, agricultural and rural areas. Especially with the change of agriculture policy, householde undertake new rural construction and supply-side reform.

Under the eco-civilization strategy and national policies, the Rural Reconstruction Center at Renmin University of China (RUC) also carried on various experienments to translate the strategy and policies into practicies and action, which includes 1)holistic approach to promote multi-functions of agriculture in education, cultures, health and historical inheritance; 2) Rural/ Urban Integration by movilizing Peasants producers and Consumers' Movement through Fair-trade mechanism;3)Mass innovation to make agriculture regree to the inerent CSA.

With the meliorative thoughts on peoples livelihoods, peoples solidarity and people's cultural diversity summarized as 3P in 2005, we strictly follow our principles, which was 3S, which was summarized in 2012, namely 1)local resources Sovereignty, 2)multi-interest Solidarity and 3)eco-sustainable Safety, to respond the three agrarian issues toward realization of eco-civilaion.



**박용남**(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Yong-Nam Park(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for Sustainable Cities)

**약력**

대전광역시 교통정책자문관을 지냈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자문을 해주고, 외국의 유명한 환경도시, 저탄소도시, 생태교통도시, 포용도시 등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저서로는 『꿈의 도시 꾸리찌바』(녹색평론사, 2009), 『도시의 로빈후드』(서해문집, 2014) 등 다수가 있다.

**Profile**

PARK Yong-Nam served as a transport policy advisor to Daejeon Metropolitan City as well as an expert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day as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for Sustainable Cities he provides policy advice to many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nd introduces well-known foreign environment-friendly cities, low-carbon cities, EcoMobile cities and inclusive cities to Korea. He is an author of a number of books, including Curitiba, a City of Dream and Robin Hood of the City.

▼ 바리귀공원(꾸리찌바)



**초록**

**중남미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혁신적 사례**

라틴 아메리카 도시를 대표하는 2개 도시를 중심으로 생태적 전환 사례를 살펴본다. 하나는 창의적인 생태도시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브라질의 꾸리찌바(Curitiba) 시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적인 혁신도시로 평가받는 콜롬비아의 메데진(Medellin) 시이다.

꾸리찌바는 도시침술(Urban Acupuncture)이라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생태 환경적인 문제는 물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왔다. 중국 의학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 개념은 그 아이디어가 유럽(스페인)에서 처음 창안되었지만, 꽃 핀 곳은 자이메 레르네르(Jaime Lerner)가 시장으로 재임해 있던 꾸리찌바시이다. 이 도시에서는 침술 요법을 통해 지속가능성, 이동성, 사회적 다양성(socio-diversity) 문제 등을 개선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꾸리찌바에서 개발되어 지금 169개 도시에서 복제해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간선급행버스(BRT: Bus Rapid Transit)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꾸리찌바에는 남미에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 전용거리인 '꽃의 거리'가 있다. 또 훼손되어 있거나 파괴된 자연을 공원이나 오페라 하우스로 복원해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도 무수히 많고, 재활용품을 농산물과 교환해주는 '녹색교환'이라 불리는 아주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있다.

콜롬비아의 메데진(Medellin)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2013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선정했고, 2016년에는 리관유(Lee Kuan Yew) 세계 도시상을 수상한 도시이다. 이 도시는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참여 계획 및 정책들을 아우를 때 사용하는 '사회적 어바니즘(Social Urbanism)'이란 개념을 갖고 도시를 새롭게 창조해 가고 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은 이 도시는 메트로케이블(Metrocables)이라 불리는 공중 케이블카 시스템, 에스컬레이터, 도서관 공원을 조성해 왔고, 후안보보 개울(Juan Bobo Creek)에 있던 슬럼도 성공적으로 재생시켰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장이었던 모라비아 힐을 식물 천국으로 바꾼 환경적 복원과, 주민참여에 토대를 둔 사회 문화 경제적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또 메데진 협곡에 있던 쓰레기 투기장 130개를 공공공원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혁명적인 생태적 전환 사업도 성공시켰다.

앞의 두 도시에서 우리나라 도시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크게 3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되 민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통합적인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시민들을 형식적으로 참여시키거나 들러리로 만들지 말고, 계획 초기부터 전 과정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토건사업 위주의 물리적인 도시재생만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복원 사업에도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MetroCable



**Abstract**

**Innovative Cases for the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Latin American Cities**

We will look at the cases of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two major Latin American cities. One is Brazil's Curitiba, which is widely know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creative ecological city, and the other is Columbia's Medellin, which is recognized as a global innovative city.

Curitiba has solve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as well as social inequalities in a unique way called Urban Acupuncture. The concept, which is based on Chinese medicine and philosophy, was born in Europe (Spain), but grew in the city of Curitiba when Jaime Lerner served as mayor.

The city has improved its sustainability, mobility and socio-diversity through this acupuncture approach. One of the major success cases is the Bus Rapid Transit (BRT) system, which was developed in Curitiba, Brazil and have been copied by 169 cities. In addition, there is "Flowers Street," the first pedestrian-only street in South America. On top of that, there are countless cases of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implemented by conversion of damaged or destroyed nature into parks or opera houses. The city also launched a very creative program called 'Green Exchange', through which recyclable materials are exchanged with agricultural products.

Medellin, Columbia was named the most innovative city in the world by the Wall Street Journal in 2013, and was awarded the Lee Kwan-Yew World City Prize in 2016. The city is reinventing itself with the concept of Social Urbanism that comprehensively refers to strategic engagement plans and policies designed to ensure social equity. With strong influence from Barcelona, Spain, the city has created an aerial cable car system called MetroCables, escalators and library parks, and also has successfully regenerated a slum in Juan Bobo Creek. And it successfully executed the environmental restoration of Moravia Hills, a waste dump, as well as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regeneration projects based on citizens' participation. It even made a success of the highly innovative project to turn 130 waste disposal sites in Medellin Valley into public parks.

I believe there are three lessons that Korean cities need to learn from these two exemplary cities. First, while establishing future-oriented urban planning, they need to make agile, rapid decision-making, and develop integrated solutions. Second, they have to build and operate a mechanism that enables citizens to actively engage in initiatives through the entire period from the very beginning, rather than simply allowing their participation as a formality or making them onlookers. Finally, they should not only focus on physical urban regeneration mainly with construction projects, but also commit themselves to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local residents and restoring communities.

▼ 린아베르데(이중궐절버스)





**찰스 쉬한(샌프란시스코 환경부)**

Charles Sheehan(San Francisco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Profile**

Charles Sheehan is the Chief Policy and Public Affairs Officer for the San Francisco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In that capacity, he overse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initiatives for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Earlier this year, Charles shepherded San Francisco's ban on plastic straws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and is actively overseeing its implementation.

Most recently, Charles orchestrated San Francisco's bold Global Climate Action Summit policy announcements to decarbonize all buildings in the City, reduce the City's disposal by 50%, and issue more green, climate-resilient bonds. Previously, Charles was the Acting Communications Director for the San Francisco Public Utilities (SFPUC), the City's clean water and power agency. At the SFPUC, Charles' unique approach to paid and earned media strategies helped launch CleanPowerSF with the highest customer participation rate (97.9%) of any newly launched clean energy program in California. Charles' award-winning advertising campaigns were also instrumental in ensuring San Franciscans reduced water use by double-digit percentages during California's punishing four-year drought.

Currently, Charles is working with his team to ensure San Francisco achieves net-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약력**

찰스 쉬한(Charles Sheehan)은 샌프란시스코 환경부 수석 정책 및 공무 책임자(Chief Policy and Public Affairs Officer)이다. 찰스는 샌프란시스코를 위한 환경 계획 개발 및 실행을 총괄하고 있다. 올 초 샌프란시스코의 플라스틱 빨대 이용 금지에 대한 입법 절차를 이끌었으며 현재 적극적으로 그 이행을 관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 내 모든 건물의 탈탄소화, 시의 쓰레기 처리량 50% 감소, 녹색, 기후변화 회복 채권 추가 발행 등 샌프란시스코의 과감한 글로벌 기후행동 정상회의(Global Climate Action Summit) 관련 정책 발표를 지휘했다.

현 직책 이전에는 샌프란시스코 공공시설위원회(San Francisco Public Utilities, SFPUC) 홍보 담당 대행을 역임했다. SFPUC 재직 시 페이드(paid) 및 언드(earned) 미디어 전략에 대한 고유의 접근법을 통해 캘리포니아 내 신규 시행된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의 고객 참여율(97.9%)을 기록했으며, CleanPowerSF 프로그램 출범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상을 받은 광고 캠페인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4년 가뭄 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가 두 자리 수 비율의 물 이용 절감을 실행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는 그의 팀과 함께 샌프란시스코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net-zero)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초록**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샌프란시스코의 길**

샌프란시스코는 과감한 아이디어와 행동을 실천하는 도시로 자체 도시 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기후 보호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준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올 초 '2018 샌프란시스코 지구의 날 아침(San Francisco Earth Day Breakfast)' 행사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세계 각 도시 대표들과 함께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실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그 몇 개월 후인 9월 글로벌 기후행동 정상회의(Global Climate Action Summit)에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건물들의 탈탄소화를 포함하는 다수의 새로운 환경 목표 이행을 통해 화석연료 없는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환경적 전환이 샌프란시스코 환경부 수석 정책 및 공무 책임자(Chief Policy and Public Affairs Officer)인 찰스 쉬한(Charles Sheehan)의 발표 "2050년까지 샌프란시스코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의 길(San Francisco's Path to Net-Zero Carbon Emissions by 2050)"의 주제이다. 찰스는 이번 발표를 통해 야심차지만 기후변화에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샌프란시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전략을 짚어볼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전기, 건물, 교통 3대 분야에서 탄소 격리 과정 및 연료 전환을 통한 배출 감축이다.

전기에 있어 연료 전환이란 100%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이러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전력 공급에 있어 이미 석탄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되고 있으며 신규 원전은 건설되고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를 동서남북 차로 달려보면 언덕과 사막에 반짝이는 태양 전지판과 풍력 발전용 터빈이 줄지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풍부한 재생 에너지를 전기 수요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규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인 CleanPowerSF를 시작했다. 현재 시 전기 공급의 77%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든 주민과 기업에 100% 재생 가능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건물의 경우에는 "천연 가스"로부터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천연 가스"에는 실제 천연이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명칭은 상당히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에 붙여진 마케팅 코드일 뿐이다. 샌프란시스코 건물 부문은 주거용 및 상업용을 합쳐 시 탄소 배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천연 가스 사용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시는 요리, 냉난방 에너지 지원을 천연가스에서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건물 탈탄소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건물 탈탄소화에 있어 시는 두 개의 주요 목표 일정을 가지고 있다. 1.) 2030까지 시내 건설되는 모든 신규 건물에 천연 가스 의존 없는 100% 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것과 2.) 2050년까지 모든 기존 건물을 천연 가스 이용 없이 100% 재생 에너지를 통해 운용되도록 개보수 하는 것이다.

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대중 및 민간 모든 차량 교통수단의 전기화를 위해 대중 교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연료를 전환하는 것이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한 두 가지 실행 전략이다. 현재 시수송국(Municipal Transportation Authority)이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35년까지 전기 버스의 완전한 전환을 통한 추가적인 탄소 배출 감축을 약속했다. 시민들의 도시 내 이동의 54%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자전거, 도보, 대중교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는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배출을 줄이고 있다. 동시에 증가하는 전기차 이용 및 시내 교통체계 전기화 지원을 위해 전기차 인프라(전기 충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 배출 제로 도시란 상당히 달성이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탄소 격리를 통해 배출하는 가스를 포집하는 탄소 배출 제로 도시는 달성 가능성을 높인다. 샌프란시스코의 공격적인 '제로 쓰레기(Zero Waste)' 목표는 매립지 유기물로부터의 메탄 배출을(시 배출의 5%)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의 퇴비 비옥화를 통한 탄소 격리에도 도움이 된다. 2017년 샌프란시스코는 175,000 톤의 퇴비를 생산했다. 퇴비를 토양과 섞어서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만들고 여기에 탄소 결합시켜 곡물 및 식물 성장을 촉진시키는 건강한 토양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획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여분의 배출 탄소 격리를 통해 탄소 배출 제로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온실가스 없는 도시라는 비전 달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지만 특히 건물과 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 다행히도 이미 이 두 분야 모두에 있어 청정 전기 공급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미래는 밝은 녹색이다.

**Abstract**

**San Francisco's Path to Net-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San Francisco is a city of bold ideas and action, where new climate protection initiatives are routinely rehearsed and piloted in the city's own urban laboratory. Earlier this year, at the 2018 San Francisco Earth Day Breakfast, the Mayor of San Francisco joined other cities around the world and signed a pledge committing the city to net-zero carbon emissions, or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n a few months later, at the Global Climate Action Summit in September, the Mayor of San Francisco committed the city to a number of new environmental goals including the decarbonization of the city's building stock, which will accelerate San Francisco's transition to a fossil fuel-free future.

San Francisco's environmental transition is the subject of the presentation, "San Francisco's Path to Net-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which will be given by Charles Sheehan, the Chief Policy and Public Affairs Officer of the San Francisco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he presentation will review the key strategies San Francisco is pursuing to achieve this ambitious, but climate-necessary goal. These strategies focus on capturing emissions through carbon sequestration processes and fuel-switching in three sectors: electricity, building and transportation.

For electricity, fuel switching means hastening the transition to 100% renewable electricity. This transition is already underway in California. Coal is all but eliminated from California's electricity supply. Old nuclear power plants are closing and new replacement are not being built. Drive up, down or across California; its hills and deserts are lined with glistening solar arrays and soaring wind turbines. In San Francisco, the city launched its new clean energy program, CleanPowerSF, to capitalize on the abundance of renewable energy available to electricity customers. Today, San Francisco's electricity supply is 77% greenhouse gas-free and the city is well on its way to providing 100% renewable electricity for all residents and businesses by 2030.

For buildings, San Francisco is beginning the transition away from "natural gas." The term itself is a misnomer because there is nothing natural about "natural gas." It's a marketing code name for methane, a highly potent greenhouse gas. San Francisco's building sector, both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rises a little less than half of the city's emissions, with most of that originating from natural gas usage. With the drive towards 100% renewable electricity already well underway, the city is further decarbonizing its building stock by fuel switching away from natural gas to cleaner, more renewable electricity for cooking, heating and cooling.

San Francisco has two major date-specific milestones for the decarbonization of the building sector. 1.) By 2030, all new buildings constructed in the city will rely on 100% renewable electricity and will operate without relying on natural gas. 2.) By 2050, all existing buildings will be retrofitted to operate without natural gas and source 100% renewable electricity.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increasing reliance on public transportation and fuel-switching to ensure all vehicular modes of transit, both public and private, are electrified, are the two main pathways to zero emissions. Today, the city's Municipal Transportation Authority operates a mostly greenhouse gas-free system and has committed to an all-electric bus fleet by 2035 to further eliminate emissions. With more than 54% of trips in the city relying on sustainable modes of transit (biking, walking, public transit), the city is actively reducing emissions by getting people out of cars and into public transit. Concurrently, the city is working on improving its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electric charging) to support the growing number of electric vehicles on the road and further electrify the transportation system in the city.

A city that emits no carbon is a daunting concept. But a net-zero carbon city that captures what it emits through carbon sequestration processes is much more attainable. San Francisco's aggressive Zero Waste goals are not only reducing methane emissions from landfill organics (5% of the city's emissions), but helping to sequester carbon through compost enrichment of soil. In 2017, San Francisco generated more than 175,000 tons of compost. That compost is mixed with soil, creating organic-rich soil, which binds with carbon, producing healthy soil that facilitates crop and plant growth. That's how San Francisco balances the equation to become a net-zero carbon city through sequestration of any remaining emissions.

While San Francisco is well on its way to achieving its vision for a greenhouse gas-free city, significant work remains, particularly in the building and transportation sectors. Fortunately, an already clean electricity supply is helping to transition both of those sectors away from fossil fuels. The future is bright green for San Francisco.





**이현정**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청 환경보전국)  
Hyun-jung Lee  
(City of Stuttgart, Off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of Urban Climatology,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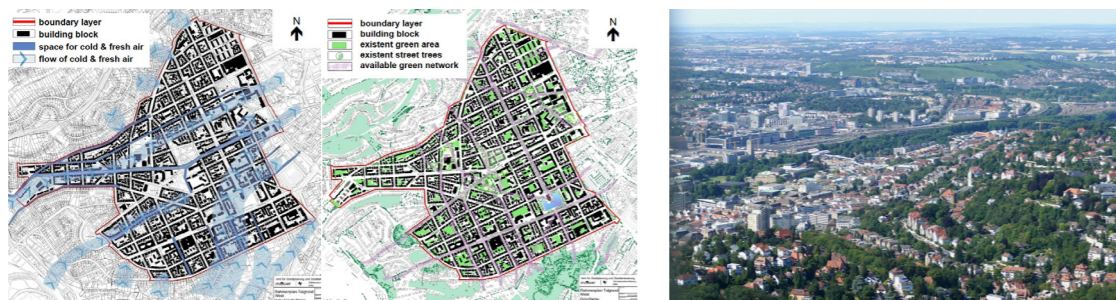
**Profile**

City of Stuttgart, Off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of Urban Climatology, Germany

Dr. Lee graduated with the Bachelor and Master "Environmental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Seoul and the Master "Environmental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Kyung Hee, Seoul. In 2009, she moved to the city of Freiburg (Southwest Germany), where she received her doctoral degree at the Facult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Albert-Ludwigs-University of Freiburg, in 2015. Her dissertation is titled "Increasing heat waves require human-biometeorological analyses on the planning-related potential to mitigate human heat stress within urban districts". Since August 2016, Dr. Lee is working at the Department of Urban Climatology, Offi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ity of Stuttgart (Southwest Germany).

Dr. Lee is mainly concerned with current issues of planning-related urban climatology and adaptation strategies within cities to regional climate change as well as the evolution and evaluation of the local urban air quality situation. Related to urban climate, these issues refer to (i)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heat waves within cities, (ii) fundamentals, determination and application of human-related indices for the assessment of the thermal component of the urban climate, (iii) simulation-based analyses on urban climate effects of urban land use planning including the adaptation to the consequences of regional climate change for the urban population, (iv) simulation-based analyses for the planning-related potential, particularly of urban greening but also of street and building design, to reduce local human heat stress within urban quarters.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her work, Dr. Lee applies different efficient tools such as the micrometeorological simulation model ENVI-met. She is presenting and discussing results of her work in administration meetings as well a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addition, she is publishing main results of her work in international peer-reviewed journals.



**약력**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청 환경보전국 도시기후부(City of Stuttgart, Off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of Urban Climatology)

이현정 박사는 "환경공학" 학사, 석사로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환경교육" 석사로 경희대학교를 졸업했다. 2009년 독일 서남부 프라이부르크(Freiburg)로 이주해 2015년 알베르트 루트비히 대학(Albert-Ludwigs-University) 환경 및 자연자원 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박사의 논문은 "폭염으로 인해 증가하는 도시 내 인체 열 스트레스를 저감하기 위한 인체 바이오 기상학적 관점에서 도시계획의 중요성(Increasing heat waves require human-biometeorological analyses on the planning-related potential to mitigate human heat stress within urban districts)"을 다루고 있다. 이 박사는 2016년 8월부터 슈투트가르트(독일 서남부) 시청 환경보전국 도시기후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박사의 주요 관심 분야는 응용 도시기후학, 도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 도시 대기질 평가 및 개선 방안 수립이다. 전공분야인 응용 도시 기후와 관련하여 (i) 도시 내 폭염 특징 분석, (ii) 도시 기후의 열 구성요소 평가를 위한 인체를 포함한 평가 지수의 개발 및 적용, (iii)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민의 적응을 포함한 도시 계획의 중요성, (iv) 도시 내 인체 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도시 녹화 및 도로와 건물을 포함한 도시 구조의 영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 박사는 미기상학 시뮬레이션 모델인 ENVI-met 등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있다. 또한 독일 및 유럽 등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정 회의 및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구 결과를 활발히 발표하고 있으며 국제 학술지에 주요 연구성과를 게재하고 있다.

**초록**

**열 스트레스를 저감하기 위한 슈투트가르트의 녹지 중심 도시계획 방안**

최근 중부 유럽 도시들은 (i) 지역 기후 변화로 인한 여름 폭염, (ii) 도시 인구 증가, (iii) 고령 인구 증가와 같은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 (iv) 적절한 주택 공급 등의 중요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Lee and Mayer, 2018).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서남부에 위치하는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주도로 독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다. 2017년 기준 인구는 61만 5천명, 면적은 207 km<sup>2</sup>이며 도시 전체에서 주거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이다. 슈투트가르트의 복잡한 지형, 특히 분지 지형으로 인해 야간에 차고 신선한 공기가 도시 내 건물 밀집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고층 건물로 인한 고밀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Landeshauptstadt Stuttgart, 2010).

독일 서남부의 복잡한 지형으로 인해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 중 하나이다. 지역적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도시 열을 저감하기 위하여 슈투트가르트는 도시 내 폭염을 감소하기 위한 도시계획 방안을 개발, 적용 및 평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ee et al., 2016).

도시민의 건강에 대한 도시 기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슈투트가르트는 1938년 도시기후부서(Department of Urban Climatology)를 설립했다.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내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기후부서를 운영하는 첫 번째이며 유일한 도시이다. 도시기후부의 주요 업무는 (i) 현재 도시 기후 상태(도시 열과 대기질) 분석 (ii) 도시 열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Rinke et al., 2016).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 시는 2012년에 기후변화 적응 컨셉 프로그램인 KLIMAKS를 개발했다 (Landeshauptstadt Stuttgart 2013). KLIMAKS는 슈투트가르트 시 행정을 담당하는 다양한 부서들과 기타 지역 이해당사자들 간의 통합 협력 절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기후 적응 전략 분류에 따라 KLIMAKS는 시민 건강, 건설, 수체계, 토지, 생물 다양성, 농업, 산림, 교통, 관광,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분야들 중 도시 계획은 장기 전략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 계획 방안으로 슈투트가르트 내 회색 기반시설과 녹색 기반시설 사이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 변형한 매력적인 도시는 두 가지 유형의 기반시설을 모두 필요로 한다. 녹지 대책 방안은 여름철 도시 냉각 효과 뿐만 아니라 생태 및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도시계획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 계획의 사례로 슈투트가르트-서부 지역은 최적화된 녹지 계획을 이 지역의 전체 도시 개발에 통합시켰다. 야간에 차고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위한 충분한 경로의 확보와 최적화된 녹지 계획으로 슈투트가르트 서부 지역은 안락한 주거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Difu, 2015).

**참고문헌**

Deutsches Institut für Urbanistik (Difu), 2015. Climate protection & climate adaptation. How do municipalities deal with climate change? Examples from the municipal practice. K In. (in German) Landeshauptstadt Stuttgart, 2010: Climate change - challenge facing urban climatology. Landeshauptstadt Stuttgart, 2013: Climate change - adaptation concept Stuttgart KLIMAKS. (in German)

Lee, H., Oertel, A., Mayer, H., Kapp, R., Reuter, U., Schmid, M., Schulze Dieckhoff, R., Steinerstauch, B., Lampen, T., 2016: Evaluation method for the human-biometeorological quality of urban areas facing summer heat. Gefahrstoffe - Reinhaltung der Luft 76, 275-282.

Lee, H., Mayer, H., 2018: Maximum extent of human heat stress reduction on building areas due to urban planning. Urban Forest & Urban Greening, 32: 154-167.

Rinke, R., Kapp, R., Reuter, U., Ketterer, C., Fallmann, J., Matzarakis, A., Emeis, S., 2016: Pilot Actions in European Cities. In: Counteracting urban heat island effects in a global climate change (ed. by F. Musco), Springer Publ, Berlin, 281-303.

Statistical State Office Baden-Württemberg, 2018: Regional data. Number of inhabitants in municipalities. <https://www.statistik-bw.de/BevoelkGebiet/GebietFlaeche/01515020.tab?R=GS111000>, accessed 18 September 2018 (in German)

**Abstract**

**Green countermeasures of urban planning to reduce heat stress: the example of Stuttgart**

Urban planning in Central European cities has currently been prepared to react to the following significant changes: (i) increasing severe summer heat due to the regional climate change, (ii) increase of urban population, (iii) demographic change, i.e. increase of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and (iv)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Lee and Mayer, 2018).

Stuttgart is the capital of the Federal State of Baden-Württemberg located in Southwest Germany. It represents the sixth-largest city of Germany. In 2017, Stuttgart has about 615000 inhabitants and covers an area of 207 km<sup>2</sup>. The share of the residential area in the entire city area is 50%. The complex topography of Stuttgart, particularly its basin, does not allow for much more densification by taller buildings because they cause disturbances of the necessary nocturnal cold air flow into the urban agglomeration (Landeshauptstadt Stuttgart, 2010).

Induced by its location in a complex terrain in Southwest Germany, Stuttgart represents one of the warmest cities in Germany. Against the background of increasing heat by regional climate change, Stuttgart is faced by enormous challenges to develop, apply and evaluate planning measures aiming at the reduction of severe summer heat within urban quarters (Lee et al., 2016).

Due to the high significance of urban climatology for human health in Stuttgart, a Department of Urban Climatology was established in the municipality of Stuttgart in 1938. Stuttgart was the first city in Germany with an own Department of Urban Climatology. Among the main tasks include (i) the analysis of the current urban climatological conditions (heat and air quality) and (ii) to advise the planning authorities by recommending measures that reduce urban heat as well as improve air quality (Rinke et al., 2016).

To achieve these goals under the climate change perspective, the climate change - adaptation concept Stuttgart KLIMAKS was developed in 2012 (Landeshauptstadt Stuttgart 2013). KLIMAKS is based on an integrated cooperation process within various departments of the city administration in Stuttgart and other local stakeholder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the climate adaptation strategy by the German government, KLIMAKS deals with diverse sectors: human health, construction, water regime, land, biological diversity, agriculture, forestry, transport, tourism, and planning. Among these different sectors, urban planning is one of the significant fields because of its sustainability under the long-term strategies.

In order to adapt to climate change, urban planning aims at the balance between the grey and green infrastructure in Stuttgart. Both types of infrastructure are necessary for a prosperous and attractive urban area. With respect to the potential of urban cooling, the ecological and esthetic effects of green countermeasures are gradually highlighted in the urban planning. As an example of urban planning toward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master plan of Stuttgart-West integrates optimized green countermeasures into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is area. Stuttgart-West provides a comfortable residential area, because urban planning considers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by use of urban green infrastructures as well as sufficient air paths to enable the nocturnal cold and fresh air flow (Difu, 2015).

**References:**

Deutsches Institut für Urbanistik (Difu), 2015. Climate protection & climate adaptation. How do municipalities deal with climate change? Examples from the municipal practice. K In. (in German) Landeshauptstadt Stuttgart, 2010: Climate change - challenge facing urban climatology. Landeshauptstadt Stuttgart, 2013: Climate change - adaptation concept Stuttgart KLIMAKS. (in German)

Lee, H., Oertel, A., Mayer, H., Kapp, R., Reuter, U., Schmid, M., Schulze Dieckhoff, R., Steinerstauch, B., Lampen, T., 2016: Evaluation method for the human-biometeorological quality of urban areas facing summer heat. Gefahrstoffe - Reinhaltung der Luft 76, 275-282.

Lee, H., Mayer, H., 2018: Maximum extent of human heat stress reduction on building areas due to urban planning. Urban Forest & Urban Greening, 32: 154-167.

Rinke, R., Kapp, R., Reuter, U., Ketterer, C., Fallmann, J., Matzarakis, A., Emeis, S., 2016: Pilot Actions in European Cities. In: Counteracting urban heat island effects in a global climate change (ed. by F. Musco), Springer Publ, Berlin, 281-303.

Statistical State Office Baden-Württemberg, 2018: Regional data. Number of inhabitants in municipalities. <https://www.statistik-bw.de/BevoelkGebiet/GebietFlaeche/01515020.tab?R=GS111000>, accessed 18 September 2018 (in German)

## 좌장소개



좌장: 윤순진(서울대 교수)

Chair: Yun Sun-Jin  
(Professor of Seoul University)

윤순진 교수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이다. 전공은 환경 에너지 정책이다. 윤 교수는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과 한국환경교육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이사이자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의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의 중앙환경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관심분야는 에너지정책, 환경정책, 기후변화정책, 환경사회학, 환경거버넌스, 공유지 관리, 환경교육 등이다.

YUN Sun-jin is a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major is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y. Prof. Yun serves as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Sociology and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Educ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 Environmental Research and the Korean Society of Climate Change Research. She is also board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 and director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for All at the Korea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In addition, Yun is a member of the Central Advisory Committee for Environmental Policy 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 member of the New Renewable Energy Review Committee 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 member of the Contribution Fund Execution Review Committee and the Mid- and Long-term Strategy Committee a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a co-chairman of the Execution Committee for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a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r major research areas of interest include energy policy,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sociology, environmental governance, management of public land and environmental education.

## WE CHANGE

## 제3부. 전환도시 서울의 도전과 실험

Session3. Transition City Seoul's  
Challenge and Experi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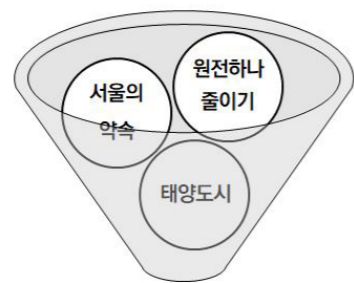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LEE Yu-jin(Senior Research Fellow of Institute for Green Transformation)

**Profile**

As we found alternative food in the local food movement of people who preferred to eat foods which were produced by farmers close to their neighborhoods, alternative energy can be obtained by our efforts to enhance local energy efficiency and achieve energy self-reliance with renewable energy. Citizens' protest in Buan county against the government's selection of their area as a site for nuclear disposal facility in 2003 inspired me to have interest in the nation's energy issues, and engage in the 'Energy Self-reliant Towns' campaign in Buan, Imsil and Tongyeong.

Fukushima Daichi nuclear disaster in 2011 encouraged me to join Green Party Korea that claimed to stand for nuclear-free era and energy transition. Serving as chief secretary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Seoul's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rogram since 2012, I have participated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rocess of developing major energy policies, such as solar energy citizens' fund, support for mini solar panel installation, energy self-reliant towns program and Seoul's Feed In Tariffs system. Today I am actively committed to the local energy transition campaign which is unfolded through energy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and serve as co-president of Local Energy Transition Nationwide Network. I have also joined the studies to help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their energy plans for Gyeonggi-do, Chungcheongnam-do, Ansan, Jeonju, Suncheon and Wanju-gun, and also have provided them with policy advice. In addition, I am a member of the Green Growth National Committee, which i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Prime Minister and a non-executive director of Seoul Energy Corporation.

I received my Ph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with a dissertation on energy self-reliant town Seongdaegol's experiment with energy transition. I am an author of several books: Energy-generating Towns are Our Hope. We Farm Sun and Wind, Story of Climate Change and Transition City, as well as co-author of a thesis, An Experiment for Urban Energy Autonomy in Seoul :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전환도시, 서울



**초록**

**“전환도시, 서울” 에너지정책, 지원을 넘어 자치로**

2012년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펼치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에너지절약, 효율개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위한 노력을 펼쳤고, 387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원전 2기분에 해당하는 에너지(470만TOE)를 생산·절감하고, 석탄 4기를 줄이는 것과 같은 대기질 개선효과를 거뒀다.

한국사회에서도 2016년 경주와 포항 지진,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 등이 발생하면서 핵발전과 석탄 의존사회에서 시급히 벗어나야함을 경고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표방하며, 출범하였다. 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춰 2022년까지 1GW 태양광발전을 목표로 하는 ‘태양의도시, 서울’을 발표하였다.

바야흐로 한국사회에서 에너지전환이 화두로 부상했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원을 바꾸는 일에 더해 에너지와 연결된 사회, 경제, 산업, 인프라, 시민들의 인식과 소비 행태 등에서 폭넓은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한국사회에 스며든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의 장막은 광범위하게 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견고하기 이를 데 없다. 문재인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소비에 따른 환경사회적 비용지불을 필요로 하지만, 사회 전체가 낮은 전기요금에 중독되어 있다. 전기요금 정상화,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세제제도 개편, 합리적인 에너지시장제도 운영, 분산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지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현재의 에너지정책과 가격 제도 하에서 시민과 기업은 자기비용을 들여 에너지효율에 투자하고, 단열성능이 좋은 건축물을 짓고, 태양광발전기를 올리는 등의 자발성을 갖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정책은 보조금과 각종 지원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에너지를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해 인식하지 않은 채 재생가능에너지의 양적확대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서울의 한 단계 차원 높은 에너지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2년 동안 에너지일자리 서비스 시범사업인 ‘와트몰’ 프로젝트가 민간협치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에너지자립 생활하는 시민브랜드, 와트몰>은 시민들이 스스로 에너지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교육하고, 단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막상 <와트몰>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다.

첫 번째 장벽은 현재의 전기요금으로는 <와트몰>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교육, 집수리단열개선, 태양광 서비스를 받기위해 지갑을 열지 않는다. 두 번째 장벽은, 서울시가 이미 공적 영역에서 시민들에게 교육, 집수리 단열개선(집수리센터), 태양광 서비스(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와트몰>과 의도치 않은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와트몰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이 이제 시작단계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더 현명해져야 한다. 서울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민들에 대한 에너지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동시에 서울시가 직접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시민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 보자. 지역의 시민주체들이 의사결정과 정책계획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행정과 시민의 협치파트너십(PCP, Public Citizen Partnership)을 만들어가야 하고, 에너지시민의 책임감과 활동무대를 넓혀야 한다. <와트몰>도 공간과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되, 와트몰의 주인공은 에너지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스마트시티도 예산을 들여 구현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의 운영자도 시민이 되어야 한다. 시가 지원해야 할 것은 스마트계량기를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측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민과 협동조합, 기업이 전력중개사업이나 수요자원 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의 지향은 ‘전환도시’일 수 있다. 전환도시란 기후변화와 피크오일, 후쿠시마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이 서울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 인프라, 공동체, 에너지 등 분야에서 자립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이다. 전환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공동체로서, 공동체 단위로 전환 교육과 문화를 통해 시민들이 전환의 삶을 살도록 한다.

‘전환도시, 서울’의 시민들은 어떤 시민일까요? 기후변화와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영향을 인식하고, 에너지 소비자로서만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공동체와 함께 전환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이다. 서울에는 그런 시민들이 있고, 이제 서울시는 에너지시민들이 에너지자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혁신해야 한다.

**Abstract**

**“Transition City, Seoul” - Energy Policy, from Support to Self-governance**

In 2012,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olicy, but it was not welcome b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at pursued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Nevertheles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pushed forward its initiatives to save energy, enhance energy efficiency and produce renewable energy. As a result, with the participation of 3.87 million citizens, the city generated and saved a significant volume of energy, which was equal to energy production of two nuclear power plants (4.7 million TOE) and made a big progress in improving the city's air quality, which was equivalent to eliminating four coal-fired plants.

In Korea, a series of events, such as earthquakes in Gyeongju and Pohang in 2016 and intensifying fine dust pollution, sent the Korean society a stern warning that it should promptly shift from its reliance on nuclear power plants and coal use. Then, in 2017, Moon Jae-in administration that advocated 'Energy Transition' was launched. To be in line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Seoul also announced 'Solar City Seoul' initiative that aimed to generate 1 GW of solar energy by 2022.

Energy transition has emerged as a main topic for the Korean society. This concept requires not only the replacement of existing energy sources, but also changes in a much broader range of energy-related areas: society, economy, industry, infrastructure and citizens's awareness and consumption behavior. The centralized energy system, however, that has taken deep roots in the Korean society for over a half century still dominates extensive fields and looks almost invincible. While Moon Jae-in government's "Transition to Safe and Clean Energy" program requires citizens to pay environmental and social expenses depending on their energy consumption, the whole society still looks addicted to low electricity bills. Thus none of the following tasks would be easy: increasing electricity charges to reasonable level, reorganizing the national tax system to reflect environmental and social expenses of energy use, running a reasonable energy market system, winning citizens' understanding and support for the distributed energy generation program and encouraging the adoption of renewable 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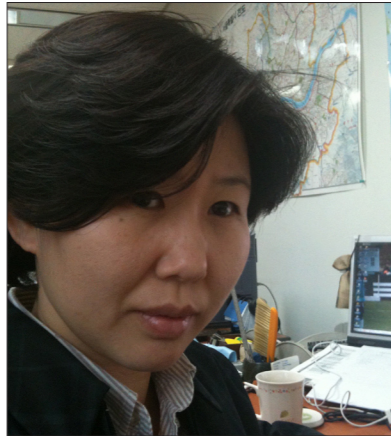
With the current energy policies and pricing systems, it would be difficult to encourage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voluntarily invest in raising energy efficiency, constructing buildings with high insulation performance, and oper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ors. Against this backdrop, the government's energy policies still rely on grants and diverse incentives. However, we need to understand that any policy that only focuses on growing the percentage of renewable energy, without convincing the public why we have to shift to other energy sources, will inevitably hit the limits.

Therefore it is time for Seoul to develop a more sophisticated energy policy. Over the recent 2 years, Seoul also carried out Wattmall, a pilot project to create energy-related job opportunities along with private organizations. <Wattmall, citizens' brand first coming to mind about energy> has enabled citizens to train and practice themselves so that they can develop and provide energy on their own. Yet there are daunting challenges to overcome to make this innovative initiative to be fully and widely implemented.

The first obstacle is the current high level of electricity charges that blocks demand creation for Wattmall. Few citizens are willing to pay to receive energy education, improve the insulation of their houses or enjoy solar power service. The second obstacle is the fact that the city government has already made available in the public areas of energy education, enhancement of house insulation (House Renovation Center) and solar energy service (Solar Energy Promotion Center, Seoul Energy Corporation), which creates an unwanted competition with Wattmall. The third obstacle is Wattmall's level of service, which is still in the initial stage.

Seoul need be wiser while fully taking advantage of its strong points. It has to make a full use of its strengths to further expand the energy-related education and engagement programs. At the same time, rather than directly providing energy service and grants, it should support citizens to maximize their passion and creativity, without intervening their activities, by identifying alternative ways of doing business. Seoul need design a program that will further allow local citizens to more actively join decision-making and policy-planning processes. It also has to build Public Citizen Partnership (PCP), raise citizen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expand the stages for their activities. Wattmall also needs find ways of administrative support to make citizens main agents of Wattmall, while offering them space and social and economic support. As for Smart City, the city administration should not implement the concept with its budget, but instead only build necessary infrastructure while letting citizens operate it themselves. All the city has to provide is a system to precisely measure energy flow through smart meters, and build a mechanism through which citizens, cooperatives and businesses use the measuring system to voluntarily engage in electricity trading or demand response market.

While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are intensifying, the path Seoul has to take might be 'Transition City'. Transition City refers to a city that is committed to building self-reliant foundation in all of the areas of architecture, infrastructure, community and energy in order to prepare itself for potential external shocks, such as climate change, peak oil and Fukushima nuclear calamity. Since the main player of building a Transition City should be communities, education and culture on transition should be provided on a community level so that citizens will be able to transform their lifestyle. What type of citizens does 'Transition City, Seoul' require? It requires citizens who clearly understand environmental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consumption, and act not only as consumer of energy, but also as its producer. It also needs citizens who recognize urgent crisis they face and make voluntary efforts along with their community to change their ways of living to address the challenge. As Seoul already has those citizens, it is time for the city to take one more step to enabling citizens to put into practice energy autonomy.



**이신해**(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EE Shin-hae(The Seoul Institute senior research fellow)

**약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 및 대중교통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연구원에 입사해 현재까지 교통연구시스템 연구실장을 거쳐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서울시 교통정책 개발 및 실행에 관한 연구에 매진했고, 현재 '걷는 도시, 서울'의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생활도로 제한 속도 하향을 위한 연구」, 「보행친화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가로설계관리 매뉴얼 작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연구」 등이 있다.

**Profile**

LEE earned her master's degree in Urban Planning and her PhD in public transporta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Then she joined the Seoul Institute and served as head of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ystem Research. Now she is a senior research fellow of the Department. Lee has devoted herself to studying Seoul'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ransportation system, and now engages in the Citizens' Committee for the city's 'Walkable City, Seoul' initiative. Her main areas of research include 「Seoul's Master Plan to Improve Pedestrian Safety and Convenience」, 「Research to Lower Speed Limit for Streets in Neighborhoods」, 「Development of Execution Plans and Manuel for Street Design and Maintenance for Pedestrian-friendly City Season 2 Project」, and 「Research to Develop Master Plan for Green Transport Promotion Zones」.

**초록**

**걷는도시 서울**

걷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역사,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철학적 의미를 지닌다. 다비드 르 브르통은 「걷기 예찬」에서 “도시에서 사는 주민들이나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비로소 도시는 존재하며 도시 안을 돌아다니고 상점, 공연장, 카페, 공원 등과 친해짐으로써 도시를 창조하고 그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런던, 뉴욕, 파리 등 세계적인 대도시는 차량 중심이던 도시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울시 걷기 프로젝트 '걷는 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역사 도시 서울은 앞과 뒤에 산이 있고 가운데에는 물이 흐르는 형세를 이룬 도시다. 산과 물길의 자연지리 체계를 따르거나 혹은 극복하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길을 만들어 왔으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차량 중심'의 도시 계획이 이루어져 인간 본연의 삶의 방식을 많이 잃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다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서울시는 교통정책의 운영철학을 전환하였다.

서울시는 '보행친화도시 선언' 및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주관하고, 보행친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역사성이 뛰어난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는 지나치게 넓은 차도를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 주변토지이용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교차로 모든 방향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교차로에서 보행자들이 우회하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 도심지역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DDP\_After



▼ 대학로\_After



**Abstract**

**Walkable City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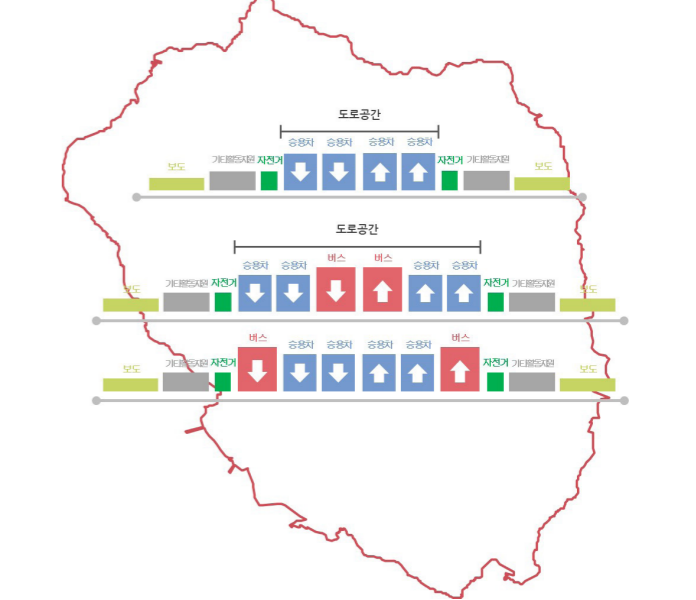
As one of human beings' most basic actions, walking has historical,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philosophical significance. In his book Praise of Walking, David Le Breton said "City finds its existence in the steps of residents and visitors, and people create a city and bring vitality to the city by walking around it and make them familiar to shops, theaters, cafes and parks within it." As they seem to reflect the French scholar's claim, international cities, such as London, New York and Paris, are pursuing to turn vehicle-centered city spaces into pedestrian-oriented ones. Seoul is not an exception and is pushing forward 'Walkable City, Seoul' project.

Seoul, which has 2,000 years of history, has mountains in its front and back sides and water flows across the middle of the city. Even though buildings and roads have been constructed to follow or overcome the geographic and topological structures of the city, a significant part of natural human lifestyle has been lost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subsequent 'vehicle-oriented' urban planning. To turn this reality back to human-centered system, Seoul has changed its management philosophy for transport policy.

To be specific, Seoul developed the master plan for the 'Declaration of Pedestrian-friendly City' and 'Walkable City, Seoul', and has executed various projects to enhance walking environment, including 'Vehicle-free Road' event and creation of pedestrian-friendly zones.

Especially, the city has plans to convert excessively wide roads for vehicles in downtown area, which had many historic sites, into lanes for pedestrians and bicycle users as well as space to support the usage of neighboring land, and create crosswalks in all directions of crossroads not to make pedestrians take pains to make a detou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ose plans, the city government designated downtown areas as 'Green Transportation Promotion Zones' and developed 'Master Plan for Green Transportation Promotion Zones'.

▼ 도로공간재편





김중휘(서울문화재단 대표)

Kim Jong Whee(President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약력

1966년 서울 장충동에서 태어난 그를 동료들은 휘(Whee)라고 부른다. 방송 진행자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던 30대 초반에 대안적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는 하자센터(haja.net) 창립에 참여했다.

이후 사회적 기업 노리단(noridan.org)을 창업했고 문화적 개념의 사회적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했다. 또한 청년의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OO은대학연구소(ouniv.org)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씨즈(theseeds.asia)를 창립했다. 그 후 성북문화재단(sbculture.or.kr) 창립부터 6년간 대표로 일했고 현재는 서울문화재단(sfac.or.kr) 대표로 있다. 그가 참여한 조직 유형과 활동 영역은 다양하나 문화, 청년, 지역의 3가지를 공통 키워드로 삼고 있다. 즉 문화와 예술이 갖는 인간적 품격과 융합의 잠재력, 청년과 청소년을 통해 당도할 미래의 길, 지역과 도시가 갖는 모순과 내재적 해결능력. 이 3가지는 그의 관점과 태도의 원형 같은 것이다. 근래에는 가족체적 개인사의 사회화와 공공성 및 공동체의 동시적 재발명에 관심을 갖고 있다.

Profile

KIM Jong-whee, who was born in Jangchung-dong, Seoul, in 1966, is called Whee by his colleagues. While working as a broadcaster and columnist in his early 30's, KIM participated in founding Haja Center (haja.net), an organization that designs alternative activities for the youth.

Then he set up Noridan (noridan.org), a social enterprise and also incubated several social enterprises dedicated to cultural activities. In addition, he created OO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univ.org), a corporation that supports young people's engagement in regional societies, and seed:s (theseeds.asia), a corporation that extends support to social enterprises. Then he served as president of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sbculture.or.kr) for six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and now is president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fac.or.kr). While he has joined diverse forms of organizations and different areas, his work is represented by three keywords: culture, youth and region. More specifically, they represent human dignity and potential of convergence held by culture and arts, path to the future to which adolescents and young people will lead us, regions' and cities' contradictions and their inherent ability to address them. These three areas serve as a basis for his perspectives and attitudes. He is recently interested in socialization and public features of family-oriented personal history, and concurrent reinvention of communities.

초록

공유도시를 위한 협치, 서울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한 곳인 성북에서 6년간 실험한 협치의 궁극적 목표는 공유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것이다. 공유도시 서울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안에는 다음과 같은 담대한 이상이 있다.

육아와 가사, 각종 돌봄, 데이터 생산 등 사회적 기여가 분명하지만 경제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체의 활동을 기여소득의 권리로 보장하여 시민의 참여와 교류를 맞춤형 대량생산 공유체제로 만드는 일. 대도시 수도 서울과 지방도시 및 농산어촌을 주기적으로 오가며 일하도록 주5일의 일과를 재구성해 타 지역, 도시, 직업 종사자 사이의 공유 경험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일.

이러한 신제도과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두고 남과 북의 도시들이 공유할 미래 사회를 문명적으로 새롭게 설계하는 것. 그렇다면 '공유도시를 위한 협치'의 휴먼 파워가 튼튼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유도시의 이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공론을 만드는 과정'과 함께 '더 아래에서 옆으로 연대하며 사회적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병행될 때 현실이 될 수 있다.

성북의 협치 경험은 서울 곳곳에서 이미 왕성하게 진행돼온 다양한 사회혁신의 어떤 조합이다. 이 점에서 관건은 혁신성장,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청년보장 등 서울의 대표적 혁신정책을 모두 연결하여 큰 그림을 만드는 일이다. 방법은 각자 다 알지 않아도 연결돼 있는 것, 조각을 한데 모으지 않아도 서로를 느끼는 것, 바로 공유의 힘이다.

이 공유를 활성화하는 열쇠가 협치, 특히 문화적 협치에 있다. 협치라는 사고와 행위가 이미 고도한 문화적 차원을 전제하고 있기에 문화적 협치라는 표현은 실상 동어반복의 강조이다. 그럼 이제부터 '공유도시를 위한 서울 협치'의 다양한 현상 중 하나인 서울시 성북구의 문화적 협치 사례를 살펴보자.

▼ 미인도\_ 2015년 미아리고가 하부 유휴공간 문화복합공간조성, 주민참여 진행, <지역기반의 창작환경조성과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미래> 열린포럼 진행 후 네트워크 파티 장면 (아름다운 미아리 고개 친구들 탈춤 워크숍 진행)  
In 2015, a culture complex was set up in an unused space under Miari overpass and engaged citizens. The photo shows a networking party held after an open forum with the theme of 'Creating local area-based environment for creativity and the future of local culture & arts ecosystem' (A Korean traditional dance workshop facilitated by Miari Gogae Friends, a working group designed to build art villages).



▼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_ 문화다양성축제 (29개국 85개 부스 / 대사관 15개, 지역단체 및 가게 70개 부스 / 부스참여 외 지역가게 16개, 2018 참여자 41,080명)  
A festival featuring cultural diversity (85 booths of 29 countries / 15 embassies, 70 local organizations and shops / additional 16 local stores without booths. In 2018, a total of 41,080 joined the event.)



Abstract

Seoul's Collaborative Governance towards Sharing City

The ultimate goal of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has been explored in Seongbuk, one of 25 districts in Seoul, for 6 years, is realizing a sharing city Seoul.

Those who are developing visions for a sharing city Seoul have the following bold ideals; any type of activities, including childcare and housework, different types of care and data production, that truly make contribution to society but are not accepted as economic profit, need be recognized as contributing profit so that citizens' engagement and exchange can build a sharing system of customized mass production; daily tasks of the 5-day workweek need be reorganized to allow workers to regularly shuttle from Seoul, a metropolitan capital city, to local cities and rural communities in order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experience of sharing between working population of cities and other regions.

Based on these innovative systems and social capital, should the future society that citie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ill share, be newly designed from cultural perspectives.

To implement all these aspirations, the human power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sharing cities' should be strong enough to handl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Such ideal of sharing cities can be realized only when both 'the process in which more people participate in producing ideas and developing public opinion' and 'the process in which grass-roots join hands each other and build social fellowship' are put into practice.

Seongbuk's experienc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 certain form of combination of various social innovation efforts which have been actively made in different corners of Seoul. From this point of view, the key to success is to draw a big picture by connecting all of Seoul's major innovative policies, such as innovation-based growth, urban regeneration, social economy, village community and youth guarantee. What can make this happen is the power of sharing, which allows people to be connected even when they do not know each other, and enable them to feel each other even when they do not put together their individual power.

The key to promoting such sharing is the very collaborative governance, especially in cultural contexts. As the thought and ac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re already based on an advance level of cultural dimension, the term, cultural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ctually an emphasis of the concept with tautology. With that in mind, let's look at some examples of Seongbuk's experiment with the concept in cultural context, one of diverse phenomena of 'Seoul's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sharing economy'.

▼ 천장산 우화극장\_ 성북정보도서관 지하 유휴공간 2017년 주민참여예산 리모델링, 월장석 친구들(월장석예술마을만들기 워킹그룹)협치 운영, 천장산 예술제, 월장석 방방방 등 주민+예술가+활동가 협력운영)

In 2017, an idle space in the basement of Seongbuk Public Library was remodeled into a theater with a budget of which execution involved citizens' opinion. This space is run by Woljangseok Friends, a working group formed to create a Woljangseok art villages. Residents, artists and activists work together to operate this place, holding Cheonjangsan arts festival and running Woljangseok Bang Bang Bang, a program to turn the library into totally different places with different usages.





**오수길**(서울지속가능발전위원회)  
Soogil Oh(Seou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약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방의제21 추진과정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고려사이버대학교 창의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치협의회 위원,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2018, 공저), 『우리의 지속가능한 도시』(2017, 공저), 『민주주의, 종교성, 그리고 공화적 공존』(2017, 공저) 등이 있다.

**Profile**

OH Soo-gil is a professor of the Faculty of Creative Engineering at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The main theme of his research and action is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e is participating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and the Council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 has co-authored several books including Success Model for Local Governance (2018), Our Sustainable City (2017), Democracy, Religious Nature, and Republican Coexistence (2017).



**초록**

**서울 SDGs**

서울시는 1996년 5월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구환경보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 왔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방의제21'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설치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후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전반의 가치로 정립하고 주요 정책을 이러한 가치에 따라 정렬하며 지속가능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3년 5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년 9월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4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는 한편, 10월에는 지속가능발전 시범평가 실시했다.

서울시는 2015년 11월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함께 2017년 1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4월에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에는 유엔 체계와 발맞춰 서울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이행계획 시범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이행계획 본점검,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등 평가체계를 운용한다.

둘째, 서울 SDGs와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수정하여 추진체계를 재구축한다.

셋째,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기업이나 지자체 또는 타 위원회 간 협업을 강화하거나 학술토론회와 교육 홍보 강화로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시키는 등 추진기반을 강화한다.

기반 마련 ('13~'17년)	본격화 및 실행 ('18년~'19년)	안정화 및 확산 (20년 이후)
- 2015 - 1차 기본계획('15~'19) 수립	- 2018 - ·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계획 시범점검(상반기) ·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정 · 서울SDGs 연계 지표(안) 개발 ·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계획 본점검 착수(하반기) · 자치구, 시 개념 확산 및 컨설팅	- 2020 - · 2차 기본계획('20~'24) 추진 · 서울 SDGs-기본계획-이행계획 연계로 통합적 비전 마련 · 2차 이행계획 수립(상반기) · 서울형 지속가능모델 확산(연중) · 자치구, 시 개념 확산 및 컨설팅
- 2017 - 기본조례 제정(1월), 이행계획 수립(3월), SDGs 수립(11월)	- 2019 - · 지속가능발전 지표, 이행계획 본점검 실시 및 보고서 확정(6월) · 2차 기본계획('20~'24) 수립 추진 및 발표(11월) · 서울SDGs 연계 지표 확정 · 서울형 지속가능모델 발굴(연중)	- 2021~ - · 지속가능발전 지표, 이행계획 점검 · 시정 지속가능성 고도화
· 1기('13~'15), 2기('15~'17) 지속위 운영	· 3기('18~'20) 지속위 운영	· 지속위 운영(계속)



**Abstract**

**Seoul SDGs**

Seoul enacted the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Green Citizens' Committee of Seoul in May 1996 in order to create pleasant leaving environment, protect environment on the planet and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as pursued to achieve those goals. The Committee, which was established to follow Agenda 21 and Local Agenda 21 initiatives adopted in the Rio Earth Summit in 1992, has faithfully fulfilled its mandate as an organization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is committed to Seoul's sustainable development efforts, focusing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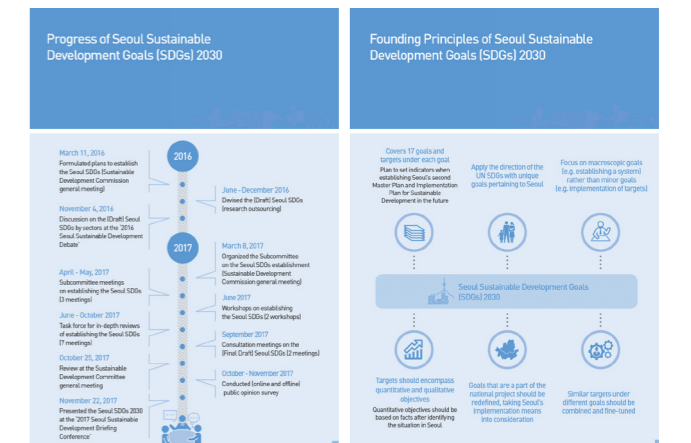
Then in May 2013, Seoul enacted the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in order to define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primary value of overall city administration and make key policies in line with the value to actively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ity government subsequently formed the first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in Sep. 2013, developed the Master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2019) in Apr. 2015 and conducted a pilot assessment of the sustainability of Seoul.

In Nov. 2015, Seoul set up its second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and in Jan. 2017, enacted the Framework Ordinance for Seoul's Sustainable Development. In Apr. 2017, it developed Implementation Plans for Seoul'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 Nov., established Seou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actively incorporate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to the city administration. All this process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

For 2018, Seoul is putting into action the following detailed action plans: first, to run an evaluation system to carry out a pilot test and tes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and implementation plans, and review the sustainability of major mid- and long-term administration plans;

second, to revise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to be aligned with Seou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rebuild the system to pursue the initiative; and

third, to reinforce a foundation to implemen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 by providing autonomous districts with consult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elping them to build their capabilities, and spread sustainable development by facilitating collaboration among businesses, local governments or other committees, or promoting the initiative with academic forums and educ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E CHANGE**

